

The 16TH Asian Athletics Championships 제16회 아시아육상경기선수권대회



2005년 9월 1일 ~ 4일 문학경기장

아시아육상경기선수권대회는 1962년 아시아경기대회 때 처음 계획되었지만 개최가 계속 미뤄지다가 1973년 마닐라 부근 마리카나 경기장에서 마침내 제1회 아시아육상경기선수권대회가 개최되었다.

아시아육상경기연맹 헌장은 1974년 8월 로마에서 개최된 국제육상경기연맹 총회에 상정되어 승인을 받음으로써 비로소 국제적으로 인정을 받게 되었다.

아시아육상경기연맹의 명칭은 당초 AAAA(Asian Amateur Athletics Association)으로 표기하였으나 2002년 8월 콜롬보에서 개최된 제14회 아시아 육상경기연맹 총회에서 명칭이 AAA(Asian Athletics Association)로 변경되었다.



| 역대 개최지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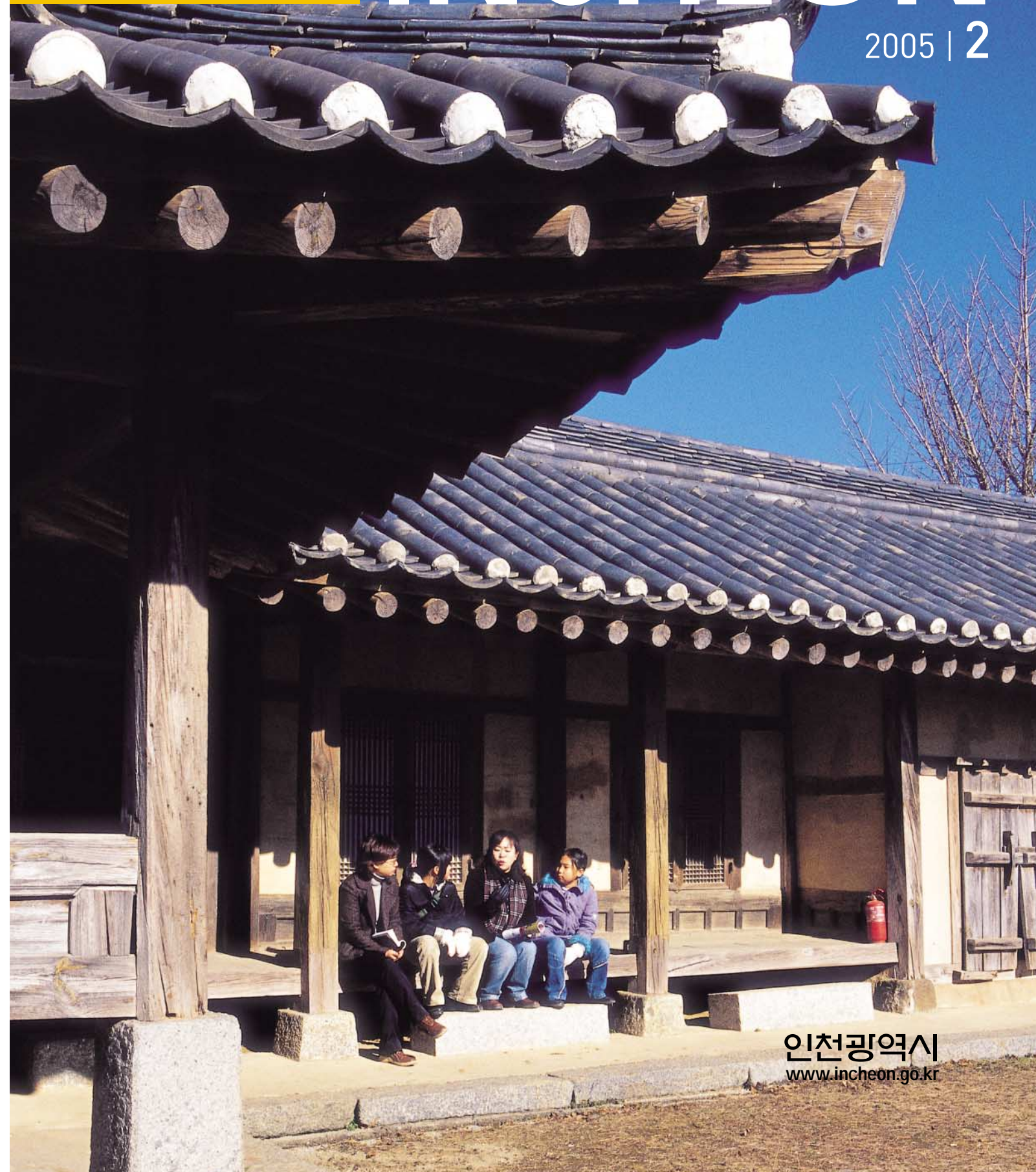
연 도	기 간	개 회 지
2005년 (제16회)	9월 1일 ~ 4일	대한민국 인천
2003년 (제15회)	9월 20일 ~ 23일	필리핀 마닐라
2002년 (제14회)	8월 9일 ~ 12일	스리랑카 콜롬보
2000년 (제13회)	8월 26일 ~ 9월 3일	인도네시아 자카르타
1998년 (제12회)	7월 19일 ~ 22일	일본 후쿠오카
1995년 (제11회)	9월 20일 ~ 24일	인도네시아 자카르타
1993년 (제10회)	11월 30일 ~ 12월 14일	필리핀 마닐라
1991년 (제9회)	10월 19일 ~ 23일	말레이시아 쿠알라룸푸
1989년 (제8회)	11월 15일 ~ 19일	인도 뉴델리
1987년 (제7회)	7월 22일 ~ 26일	필리핀 마닐라
1985년 (제6회)	9월 25일 ~ 29일	인도네시아 자카르타
1983년 (제5회)	11월 30일 ~ 12월 4일	쿠웨이트
1981년 (제4회)	6월 5일 ~ 7일	일본 도쿄
1979년 (제3회)	5월 31일 ~ 6월 3일	일본 도쿄
1975년 (제2회)	6월 9일 ~ 14일	대한민국 서울
1973년 (제1회)	11월 18일 ~ 23일	필리핀 마리카나

Good Morning
굿모닝인천

INCHEON

2005 | 2

2005년은 인천투자의 해, Buy Incheon



인천광역시
www.incheon.go.kr

우리시 청렴도 ‘우수’



우리시의 관공서 청렴도가 1년전에 비해 상당 부분 개선된 것으로 나타났다. 부패방지위원회가 전국 313개 공공기관의 부패발생 가능성이 높은 1천324개 업무와 관련해 민원인 7만5천317명을 대상으로 한국갤럽과 한국리서치에 의뢰, 지난해 말 실시한 청렴도 측정결과 이같이 분석됐다. 조사결과를 살펴보면 지난해 인천시의 청렴도는 8.34점(만점 10점)으로 6개 광역시 가운데 3위이며 전년보다 1.05점 높아졌다. 이같은 개선도는 부산(1.54점)에 이어 전국 16개 시·도 중 두 번째로 높은 수치다. 군·구 가운데서는 강화군(8.98점), 연수구(8.82점), 계양구(8.75점) 등의 청렴도가 높게 평가됐다.

굿모닝인천

2005.2 (통권 134호)

발행인 인천광역시장 이상수

편집인 공보관 조윤길 공보담당 사무관 유승준

편집장 유동현 취재 편집위원 정경애·지영일

사진 심영보·하장원(시공보관실)·김성환·김정식(자유사진가)



04



10



48

02窓2005 | 우리시 청렴도 ‘우수’

04 Space View | 우주에서 강화를 보다…

06 그래 어디든 가보는 거야 | 시네마 & 드라마 투어

10 인천에서 즐겁게 잘 사는 법 | 차와 찻집

14 함께 나누는 세상 | 21세기미용학원 이미용봉사단

16 이달의 막·上·막·下 | 데이빗 란츠 내한공연 외

19 새로 나온 인천책 | 인천역사문화총서⑥~⑭ 외

20 조명 | 역동하는 인천, 달라지는 인천

24 정보뱅크 | 공동육아어린이집

28 굿인천 굿뉴스 | 2005년 인천투자의 해, ‘Buy Incheon’ 외

31 의정소식 | 2004 불우이웃돕기 깜짝 연극무대 출연 외

32 군·구 풍향계 | 중구, 한중문화관 개관 임박 외

33 인천경제자유구역청 소식 | GM대우 자동차 성능시험장 관련 MOU 체결 외

34 동서남북 | 인천광역시 e-클린센터

35 yummy yummy | 외국인이 이용하기 편리한 음식점

36 엄마와 함께 문화재 탐방 | ⑫ 용흥궁·철종외가

39 Youthzine | 한·일 청소년국제교류

40 아름다운 도전 | 스페이스 홀

42 디카 속 인천풍경

43 인천의 물류이야기 ② | 새해 인천의 물류발전 계획

44 만화로 보는 인천의 최초·최고, 유일시리즈 | ② 우리나라 최초의 성냥공장

46 몸도 튼튼 마음도 튼튼 | 비만

47 앓, 나도 이런 일 있었는데 | 고수의 유인 금융사기

48 사람 하나 만나고 싶다·열네 번째 사람 | 서영남씨

52 독자마당 | 이달의 주제 ‘눈’

54 Info Box | 동물 뼈, 조개껍질은 일반쓰레기로 버려주세요 외

58 독자 여러분의 고견 적극 반영하겠습니다

59 여기가 거기 | 월미도 독길

〈굿모닝인천〉은 무료로 배부됩니다. 구독문의 (032-440-2072~3) 광고문의 (032-440-2042, 2071)



발행처 인천광역시(인천광역시 남동구 시청앞길 25 (구월동 1138번지)) 발행일 2005년 2월 1일
행정간행물 등록번호 628000000-84900-42-81 인쇄 인천시인쇄정보산업협동조합

〈굿모닝인천〉은 <http://www.incheon.go.kr>을 통해서도 볼 수 있습니다. 본지에 실린 글과 사진은 허락받은 후 사용할 수 있습니다. 본지에 게재된 내용은 필자 개인의 견해이며 인천광역시의 공식적인 입장과는 일치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표지설명 _ 강화읍에 있는 ‘용흥궁’ (관련기사 36쪽)

우주에서 강화를 보다...



외포리



전등사



보문사

우주에서 내려다본 강화는 푸른 바다, 황토빛 토지 그리고 초록의 숲이 어우러진, 이상향(理想郷)이다. 저 멀리 지구에서 680km나 떨어진 우주공간 속의 인공위성. 대기권을 벗어나고도 한참을 더 가야하는 머나먼 곳에서 촬영한 강화는 태고의 신비를 간직한 곳이었다.

우리시는 지난 2002년부터 2003년까지 8개구 전 지역을 고해상도 위성영상으로 촬영한데 이어 지난해에는 강화와 옹진군 지역을 촬영했다. 특히 강화군과 옹진군의 서해5도 지역은 접경지역이라 지형정보를 취득하기가 상당히 어려운 지역이다. 이번에 촬영한 자료는 1m급 고해상도 위성영상자료라 확대를 하면 지상 500m지점에서 내려다보는 것처럼 생생한 느낌이다.

위성영상 자료는 도시계획 분야를 비롯해 항만공항물류, 주택건설, 공원녹지업무, 관광분야 등 여러 가지 분야에서 폭 넓게 쓰이고 있다. 지형변화가 많은 곳은 언제나 새로운 자료로 갱신할 수도 있어 수시로 변화하는 상황을 파악하고 적절한 시기에 이용할 수 있는 것 또한 장점이다. 이렇게 구축된 위성영상 자료는 시범운영기간을 거쳐 오는 3월부터 공간영상정보관리시스템(siims.incheon.go.kr)에 게재한 후 본격적으로 제공될 예정이다.

특히 강화와 옹진군 지역은 관광 홍보용으로 활용도가 높을 것으로 예상된다. 마치 경비행기를 타고 관광객에게 안내하듯 생생하고 자세히 인천의 모습과 발전상 그리고 미래를 소개할 수 있기 때문이다.

글 _ 정경애 (편집위원 · happyjka@incheon.go.kr) / 사진제공 _ 시 지적과 항측실



갑곶리



참성단

어머나, 인천이 ‘작품’ 이네

항구, 공항, 섬, 차이나타운, 르네상스식 근대건물 ... 옛것과 새것, 자연과 인공이 공존하는 도시, 인천에서는 어디에 카메라를 들이대도 곧 '작품'이 된다. 때론 로맨틱하게, 때론 우수에 젖게 하는 필름 속의 인천을 기행해 본다.

젊은 날의 슬픈 소나타

슬픈연가



웅진군 시도 앞바다는 ‘눈물바다’이다. 사랑과 우정으로 상처받은 젊은 날의 소나타 <슬픈연가>가 바다를 울리고, 사람을 울리고 있다. 권상우(준영), 김희선(혜인), 연정훈(건우)의 가슴 아픈 사랑이 이야기가 이 겨울에 사람들의 가슴을 애절하게 만들고 있다.

진한 슬픔은 고독한 겨울 바다 풍경이 한몫 하고 있다. 우여곡절 끝에 재회하게 된 준영과 혜인이 건우의 별장에서 하룻밤을 보낸다. 지중해 해안에서나 볼 수 있을 것 같은 하얀색조의 이 별장 세트장은 시도 끝자락에 멋진 풍광을 배경으로 세워져 있다. 바다를 양쪽으로 끼고 있는 별장에서 보면 강화도 마니산 봉우리가 코앞이고 동막해수욕장이 앞마당처럼 보인다.

사방을 유리벽으로 만든 둥근 방에는 하얀 피아노가 한대 놓여져 있다. 혜인이 미국으로 가기 전날 그녀를 위해 작곡한 곡을 연주하는 모습을 보는 준영의 눈동자에는 시도 앞바다가 서럽게 담겨져 있었다.



그 바다 ... ‘비’ 온 뒤 맑음

풀하우스



시도 수기해수욕장에는 <풀하우스>가 한 폭의 그림처럼 자리 잡고 있다. 전망이 확트인 통유리창, 푸른 하늘로 솟은 하얀 망루, 바다로 쪽 뻗은 나무데크, 정원의 장미터널... 말 그대로 만화 주인공들이나 살 것 같은 아름다운 집이다. 이곳에서 영재(비)와 지은(송혜교)은 티격티격하면서 사랑을 이뤘간다. 풀하우스가 있기 전에도 그 바다는 예뻐다. 끝에서 끝까지 한달음이면 달을 수 있을 만큼 작은 해변은 활처럼 휘어져 마치 호수처럼 아늑하다. 바다 건너 눈앞에는 강화도 남단이 펼쳐진다. 마니산의 자태가 뚜렷하게 보이고 일몰이 아름답기로 소문난 장화리 해변도 손에 닿을 듯하다. 건너편 바다에서 밀려오는 잔잔한 물결 속에는 비와 송혜교가 외쳐 대던 ‘아자. 아자 화이팅!’이 실려온다.



사랑은 돌아오는 거야

천국의계단

한때 무의도는 ‘천국의 섬’이란 애칭으로 불리며 젊은 연인들의 발길이 이어졌다. 아직도 그 바닷가에는 애절한 사랑의 메아리가 파도에 묻혀온다. sbs드라마 <천국의계단>은 최지우, 권상우, 신현준, 김태희 등 네 남녀의 엇갈린 운명과 사랑을 그린 멜로 드라마이다.



하나개해수욕장 해변 모래 둔덕에는 <천국의계단>에서 정서(최지우 분)와 송주(권상우 분)의 어린시절 추억을 담고 있는 집이 서 있다. 기억을 잃은 정서가 ‘어떤 사람이 살고 있을까? 꼭 천국 같애’라고 속삭이던 사랑의 안식처이다. 마치 동화 속 장난감처럼 만들어진 별장 세트장이 시원하게 펼쳐진 해변과 잘 어울린다.

천국의 집이 아름답게 보이는 것은 바다와 함께 있기 때문이다. 권상우가 슬픈 눈으로 지평선을 응시하며 하얀 피아노를 쳤던 바다, ‘사랑은 돌아오는 거야’하며 하늘을 향해 부메랑을 던졌던 그 바다가 바로 아래 펼쳐져 있다. 현재 <천국의계단>은 일본 후지TV에서 매주 토요일 오후 4시에 인기리에 방송되고 있다.



이름도 없었다 ... 존재도 없었다.

실미도



비운의 섬, 실미도는 무의도 원편에 있는 작은 무인도다. 영화가 사실을 토대로 했고 실제 현장을 영화세트장으로 사용했기 때문에 실미도 기행은 실제와 스크린 사이를 넘나든다.

영화 <실미도>(안성기, 설경구 주연)는 김신조 등 무장공비 31명의 청와대 습격사건에 대한 보복으로 김일성 주석궁을 폭파하기 위해 1968년 4월 극비리에 창설된 684특수부대의 이야기이다. 이 영화는 우리나라 영화 사상 처음으로 1천만 관객을 돌파했다.

실미도에 가려면 무의도 실미해수욕장에서 물이 갈라지기를 기다려야 한다. 썰물 때 해수욕장과 실미도 사이에 거대한 갯벌과 모래톱이 드러나 2시간동안 길을 내준다. 실미도 해변을 걷다 보면 야트막한 산으로 올라가는 길이 나 있다. 영화 세트장이 있던 곳으로 이어지는 길이다. 소나무들과 잡목 사이로 난 오솔길을 따라 10여분 올라 정상에 서면 반대편으로 아담한 해변이 펼쳐진다. 아쉽게도 해변가에 설치되었던 실제 세트장은 사라졌고 군 천막과 철조망으로 만든 권투 사각 링이 기행을 나선 사람들의 아쉬움을 달래준다. 그러나 이곳저곳을 살펴보면 막사가 들어섰던 터, 굴러다니는 모래주머니, 나무계단 등 촬영의 흔적을 볼 수 있다.

실미도는 평균해발 35m의 나지막한 야산이다. 해변에서 684부대원들이 ‘해골 능선’이라고 이름을 붙인 꼭대기까지는 10분밖에 걸리지 않는다. 이 능선에 서면 파도와 바람소리 밖에 들리지 않다. 그 소리가 마치 특수부대원들의 절규처럼 들린다.



영화세트장 가는 길

슬픈연가 & 풀하우스

두 세트장 모두 웅진군 시도에 있다. 인천국제공항고속도로를 타고 첫번째 IC에서 빠져 나와 삼목선착장에 다다른다. 배를 타고 신도에 내려 연도교를 거쳐 시도로 건너간다. 먼저 수기해수욕장에 있는 <풀하우스> 세트장을 둘러보고 여기서 약 500m 떨어진 <슬픈연가> 세트장으로 간다. 신도 가는 배는 한시간에 한번씩 있다. 자동차도 실을 수 있다.

배편 문의 _ 세종해운 884-4155

천국의계단 & 실미도

<천국의계단> 세트장이 있는 무의도는 을왕리행 306번 버스를 타고 잠진도에서 카페리호를 타고 건너가거나, 승용차를 이용할 경우 공항남측도로를 달리다 잠진도 연륙교를 건너 무의도행 배를 탄다. 또한 연안부두에서 여객선을 타고 가는 방법도 있다. 실미도는 무의도 하나개해수욕장에서 물이 빠지면 걸어서 건너갈 수 있다.

배편 문의 _ 무의도행 카페리호 751-3354~6

우리고속훼리 887-2891 www.wk.co.kr

스무살, 그들의 출구는 ‘인천’

고양이를 부탁해

인천의 한 여자상업고등학교를 갓 졸업한 스무살 여자들의 정체성 문제를 다룬 일종의 성장영화다. 주인공(배두나, 이요원, 옥지영 출연)들은 만석부두와 자유공원을 배회하고, 월미도와 주변 횡집거리에서 인형 뽑기를 하며 막막함과 맞선다. 여고 단짝 친구인 그들은 이처럼 인천과 서울의 무수한 길들을 오가며 방황하고 싸우고 화해하며 저마다의 길을 찾아 떠난다.

상영 당시 ‘좋은 영화’로 선정되기도 했던 이 영화는 대부분 인천에서 촬영했다. 특히 현실에서 탈출하고 싶은 주인공의 마음을 표현이라도 하듯 국제여객터미널과 월미도 그리고 만석부두 등 인천의 ‘출구’가 배경으로 많이 나온다. 이밖에 동인천역(지하상가), 북성동 차이나타운, 자유공원 부근 등 인천의 모습이 고스란히 필름에 담겨져 있다.

느와르 속의 애달픈 사랑...

피아노

〈피아노〉는 밑바닥 인생을 살던 아버지와(조재현 분) 자식(고수 분)의 갈등, 아버지가 다른 형제(김하늘, 조인성 분)끼리의 갈등과 이루어질 수 없는 사랑 이야기를 다룬 드라마다. 유전자적으로 남남이면서 가족이기도 한 수아와 재수 남매의 사랑이 드라마의 큰 줄기이다.

촬영은 대부분 중구청 근처에서 진행되었다. 수아네 집은 중구청 바로 뒤 담쟁이 넝쿨이 멋지게 감싸 안은 일본식 집이다. 그 집 대문과 벽에는 아직도 피아노의 잔상을 못 잊는 사람들이 쓴 낙서 흔적이 보인다. 역관이 가족과 함께 모여 살고 싶어 하는 계단 옆 옛집은 중구문화원 건물이다. 중구문화원 앞에는 드라마 촬영지였음을 소개하는 안내판이 세워져 있다. 이밖에도 경인수협공판장과 (구)인천시경 주변, 자유공원 길, 제일교회, 토속음식점 토촌 등에서 감독의 ‘레디, 고!’ 함성이 연일 울렸다.



인천은 ‘시네마 천국’

인천이 대한민국 ‘영상메카’로 떠오르고 있다. 우리시는 강화군 선원면 연리 일대 30만평에 2015년까지 종합영상단지를 조성할 계획이다. 우선 드라마와 영화, CF 촬영 및 제작이 가능한 오픈세트를 짓고, 2단계로 고려촌과 퓨전아일랜드를 각각 조성할 예정이다. 고려촌은 고려시대 생활상을 재현한 민속촌·숙박시설·이벤트 광장이 들어선다. 퓨전아일랜드에는 복합영상센터·컨벤션센터·놀이시설 등이 각각 지어질 예정이다. 이곳에는 70년대 서울 한옥들과 판자촌을 재현시킨 SBS 드라마 〈애정만세〉 오픈세트가 이미 건립돼 촬영과 방송을 마친 상태다.

중구 용유도와 실미도, 그리고 옹진군 신도 등 3개의 섬도 대형 영상단지로 집중 개발된다. 용유도 일대는 영화제작시설 등을 갖춘 문화 콘텐츠 산업단지로, 신도는 국제테마파크 등이 들어선 문화예술촌으로, 그리고 실미도는 영화촬영세트장을 갖춘 영상단지로 각각 개발된다. 특히 용유도에는 예술고교와 영상·예술·멀티미디어 등의 학부를 갖춘 영상대학 및 영화아카데미, 대형스튜디오, 특수촬영장, 영상체험관, 복합영상지원관 등의 영화 제작 시설이 들어설 예정이다. 한편 무의도에서는 박경리 원작을 드라마화 한 〈김약국의 딸들〉(엄수정, 임지은 주연)이 촬영될 예정이며 장봉도에는 SBS 드라마 〈홍콩익스프레스〉(차인표, 송윤아 주연)세트장이 지어질 예정이다.



변두리 인생들의 슬픈 이야기

파이란



중구청 주변의 변변찮은 3류 양아치 이강재(최민수 분)와 그와 서류상 결혼으로 코리아드림을 꿈꾸는 중국 여자 파이란(장백지 분)의 슬픈 이야기이다.

이 영화에서 인천은 바다 건너 온 중국의 3류 인생들이 한국의 3류 인생과 뒤섞여 사는 변두리 공간으로 묘사된다. 카메라는 어떤 채색도 기교도 없이 이 우중충한 공간의 누추함을 고스란히 전시한다. 인천항여객터미널이나 동인천역 주변, 자유공원에서 내려다본 인천 구 시가지, 중국음식점 ‘퐁미’, 송현시장의 순대국집, 파이란이 탄 택시 차창 밖으로 내비치던 인천역과 중국인거리 ‘패루’의 모습 등이 스크린 곳곳에서 발견된다. 아직까지도 파사모(파이란을 사랑하는 모임) 회원들은 영화를 되새길질 하기 위해 가끔 파이란 촬영지를 순례하고 있다.

그 바다에 가면, 운명처럼 사랑하게 될까

시월애



시간(時)을 초월(越)한 슬픈 사랑(愛)이야기, 1998년의 남자 성현(이정재)과 2000년의 여자 은주(전지현)가 우체통을 매개로 대화를 나눈다. 강화군 석모도 하리의 갯벌 위로 긴 다리를 드러내놓고 사각형의 몸에 세모꼴의 지붕을 얹어놓은 모양으로 서있던 아름다운 집 ‘일마레’에서 두 사람은 2년의 시차를 두고

거주하며 집 앞의 ‘우체통’을 통해 만난다. 혼자만의 공간으로 돌아오면 떠나버린 사랑 때문에 고독하다. 사랑, 그것은 시간을 거뜬히 뛰어넘을 수 있을 만큼 위대한 힘을 가진 것. 하리에 가면 누구나 그런 사랑의 힘을 느껴볼 수 있을지 모른다. 하늘과 산을 적시고 끝내 갯벌의 꿈을 파고들던 노을과 아카시아 나무 한 그루만 하리 바다에 있다면 충분히 보였다. 영화 속의 아름다운 집 ‘일마레’는 아쉽게도 그 해 태풍에 사라졌지만 그곳을 찾는 이들의 마음속에 자리 잡고 있다.

글 _ 유동현 (편집위원 · batubatu@incheon.go.kr)
사진 _ 김성환 (자유사진가 · koin1@incheon.go.kr)



cinema etc.



북경반점(감독 김의석 / 출연 김석훈, 명세빈, 신구)은 주인, 주방장, 종업원, 아버지와 딸의 갈등과 화해 그리고 사랑을 담아낸 자장면 같이 달콤한 영화다. 오펡냉채, 봉위하, 북경삭스핀, 등 중국요리로 볼거리를 더해 시각 뿐만아니라 후각, 미각을 자극했던 영화다. 촬영지는 화교들의 애환이 묻어 있는 중구 북성동 차이나타운. 지은 지 100년 된 한의원 건물을 개조해 세트장 ‘북경반점’을 재현했다.



패밀리(감독 최진원/ 출연 황신혜, 윤다훈, 김민중)는 세계화시대에 맞춰 중국으로 진출하기 위해 인천을 접수하려는 엘리트강패와 그에게 절대 굴복하지 않는 인천 룸살롱 마담의 대결을 그린 코믹액션물이다. 룸살롱을 비롯해 호텔과 일식집, 놀이공원, 원목창고, 월미도 카페 등 영화의 90% 이상을 인천에서 촬영했다. 특히 맥아더 동상 앞에서의 영화 첫 장면이 인상적이다.



인정사정 볼 것 없다(감독 이명세 / 출연 박중훈, 안성기, 최지우)는 인천의 강력반 형사를 실제 모델로 삼은 영화로 박중훈이 그 역을 연기했다. 신흥동 창고와 나이트클럽 그리고 인천항 하역장 등 인천의 모습을 필름 사이사이에서 발견할 수 있다.



엽기적인 그녀(감독 박재용 / 출연 차태현, 전지현)는 인천행 경인전철에서 복학생 견우가 터프한 엽기녀를 만나게 되면서 벌어지는 기상천외한 이야기를 코믹하게 푼 영화로 부평역 부근과 인천역 등이 스크린에 비춰진다.



텔미 씬딩(감독 장윤현 / 출연 한석규, 심은하)는 국내 최초의 하드고어(Hard-Gore) 스릴러 영화이다. 조형사가 채수연의 옛 기억을 더듬고 자 수연의 어린 시절을 함께 찾는 장면은 중구청 뒤편의 일본집이 즐비한 동네이다.



피도 nulmudo eopji(감독 류승완 / 출연 이혜영, 전도연)은 어두운 인생들의 생존 모습을 그린 이 영화로 60% 가량을 인천에서 촬영했다. 주인공이 차 사고를 내서 운명적으로 만나는 곳이 중구청 뒷골목이며 공중 카 스텀트 장면은 인천항에서 촬영했다.

게 서두르는 이여, 차나 한잔 들고 가소

‘한 주발의 차는 한 조각 마음에서 나온 것이라
한 조각 마음이 한 주발의 차에 있나니
마땅히 한 주발의 차를 맛보소서.
한번 맛보면 응당 한량없는 즐거움이 생기리...’ (서자 함허의 시)

따끈한 차 한잔 마셔볼까!

차를 제대로 알고 마시자면 부담스런 비용과 ‘마시기 번거롭다’는 걱정이 앞서곤 한다. 이런 것을 어떻게 마시나 싶게 차 맛도 매우 낮설다. 일부 특별한 사람들이나 즐기는 것으로 보는 경우가 종종 있지만 그건 오해다. 값싸고 편리한 개인용 다기의 보급으로 집을 비롯해 사무실에서 쉽게 차 마시는 것이 가능하고 차 한통이면 1년은 족히 마실 수 있으니 찻값도 비싼 것은 아니다. 게다가 요즘 웬만한 곳에는 냉·온수기가 있어서 손쉽게 뜨거운 물을 구할 수 있다.

이왕에 마실 것을 찾는데 왜 차가 좋은지 살펴보면 그 성분 중에 떫은 맛을 지닌 탄닌(폴리페놀·카테친)은 위장점막 보호, 살균작용, 해독작용을 돕는다. 쓴맛이 나는 카페인 은 중추신경에 작용해 흥분 유발, 지구력을 증가시키는 피로해소 작용, 사고력 향진작용 등의 유익이 있다. 또한 아미노산(단맛), 비타민 C(신맛), 무기질(짠맛) 등의 성분이 각종 신진대사를 돕고 영양소로서의 구실을 한다. 따라서 차를 즐겨 마시는 사람은 피로를 덜 느끼고 성인병을 예방할 수 있으며 노화방지와 피부미용 효과까지 거둘 수 있다. 특히 스트레스 과잉과 수분 섭취가 부족한 현대인들에게 차를 마시기 위한 준비과정, 훌쩍훌쩍 음미하기와 같은 차 마시기가 큰 도움이 되며 여러번 우려 마시기 때문에 충분한 물을 먹는 효과가 있다. 이 정도면 ‘다반사’로 즐기며 차 맛에 정을 들일만 하다.

차를 만나고 느낄 수 있는 곳들

이렇게 좋은 차를 홀로 즐기기도 하는 연인 혹은 다른 사람들과 어울리며 마시고 싶다면 시내 찻집으로 발길을 돌려보자. 요즘 찻집들은 차만 팔지 않는다. 여러 종류의 차와 다기류 등 각종 소품을 함께 진열해 놓고 손님들에게 판매한다. 나름대로 전문 백화점 수준에 맞먹거나 눈요기하기 좋은 전시품 역할을 해준다.

구월동에 위치한 **어울림**(424-5452)은 약 25평 규모의 찻집으로 녹차류, 중국 발효차, 화차류, 대용차 등 20여 가지의 차 맛을 볼 수 있다. 여기에 흰떡구이와 한과를 곁들인다면 금상첨화. 물론 각종 차와 향, 다기 등 소품을 판매하는데 구입에 대한 부담을 가질 필요는 없다. 인천종합문화예술회관 부근에 자리잡은 덕에 지역 문화예술인들과 시민단체 관계자들이 회의나 손님접대 삼아 자주 찾곤 한다. 요즘같은 추운 날씨에는 따끈한 청주 한잔의 맛도 볼 수 있다.

이곳에서 멀지 않은 인천불교회관 1층에는 **차향이 머무는 트랙**(423-9904)이 있다. 길가에 접해 있지만 작은 꽃밭도 있어 제법 운치있다. 차를 주문하면 떡과 견과류 등 군것질거리 다식을 함께 내어준다. 푸짐한 대접에 장사가 될까 싶다. 삶은 대추를 으갠 후 걸러, 다시 10시간 정도를 푹 고아 만든 대추탕이 겨울철 인기 대용차란다. 이곳에서는 ‘한·중·일’의 차에 관한 모든 것을 체험하게 되는데 각종 차와 수백가지에 이르는 소품, 게다가 주인의 친절한 설명과 다례 시연은 어느 찻집과 다른 즐거움을 준다. 차의 가격은 4천원에서 5천원사이로 한끼 점심식사 수준에 차를 좀더 편안하게 접할 수 있다. 작년 9월 문을 열어 이젠 제법 단골도 생기고 주인네의 인심과 찻집 분위기에 끌려 마니아도 있을 정도.

부평역쪽으로 나가보면 롯데백화점 부근에 찻집 **식미 기쁜 물**(514-6575)이 있다. 건강차 위주로 맛볼 수 있는 이곳은 과일주스와 떡, 한과 등 다양한 먹거리를 준비해 놓고 있다. 손님이 자리에 앉으면 모듬떡 한접시를 보너스로 내어 놓는다. 특히 주인이 직접 만들어 낸 5~10포 단위 한방차를 1만원에 판매, 저렴한 비용으로 집이나 사무실에서 건강차를 즐길 수 있다. ‘식미 기쁜 물’ 옆쪽으로 **오랑**(505-5161) 찻집이 있다. ‘오랑’은 서구적인 분위기로 현대인의 입맛에 맞는 모양과 색깔을 지닌 가지각색의 떡을 함께 맛볼 수 있다. 그래서인지 ‘떡카페’로 홍보하기도 한다.

특별한 서비스가 눈에 띄기는 길병원 제2별관 1층에 있는 **차의 향기**(461-0431)가 있다. 전통차와 한과, 다식, 각종 떡류를 구비하고 있는 것 이외에 과일바구니, 폐백과 이바지 음식, 산나물과 호박 등 주인의 손길이 뻗나 물류 등을 곁들여 판매하고 있다. 넓은 공간에 세련된 서양식 카페 분위기로 각종 모임을 갖기에도 좋다.

이밖에 차와 함께 민속주를 맛볼 수 있는 찻집으로 부평의 **구름채**(515-9847), **토담골**(512-5008) 등이 있다.



어울림



차향이 머무는 트랙



식미 기쁜 물



차의 향기

마시는 데에도 예(禮)와 도(道)가 있나니

우리 조상들은 차를 ‘그냥’ 마시지 않았다. 마시는 행위와 과정을 통해 심신을 닦았던 것이다. 서로 상극인 불과 물을 조화시켜 자연 그 자체인 차 나뭇잎을 우려 마시는 일상을 통해 세상 이치와 사람 살아가는 도리를 무엇으로 깨우친 지혜가 담겨있는 것이 다도와 다례이다. 부드러우며 격식을 갖춘, 물 흐르듯 이어지는 다례는 한편의 춤과도 같다. 사방 주위는 아늑한 향내와 함께 신성한 기운이 일순 감돌고, 그리하여 먼 옛날부터 사람들은 차를 마셔왔고 지금도 마시고 있는데, 이것은 차에 담긴 지혜와 이로움이 주는 파사로움이 여전하기 때문이다.

예진원(원장 최순향, 545-7050)은 사단법인 한국다인연합회 소속 단체로 차에 대한 모든 것을 익히고 즐기는 전문공간이다. 문을 열고 들어서면 은은한 차향과 함께 부드러운 온기가 온 몸을 감싸 도는 것이 차원이 다른 공간에 빠져든 느낌을 준다. 방에는 크고 작은 다기 그리고 각양각색의 차들이 손님을 반긴다. 마치 작은 박물관을 연상시키면서 아기자기한 소품들을 보자면 소꿉놀이의 추억이 떠오를 만도 하다. 예진원에서는 월, 금, 토요일 마다 초급반에서 사범반까지 수준별 강좌를 진행한다. 교육비는 월 6만원이며 재료비는 따로 없다. 수업은 주 1회 이뤄지는데 차를 마시며 이야기를 나누다보면 거의 종일이 소요된다.

규방다례보존회(이사장 이귀례, 468-3595) 역시 기초적인 차생활예절을 전수하고 전문자인 지도사범으로 갖추어야 할 덕목 및 우리예절 등 차 관련 제반 분야를 지도하는 곳이다. 주요사업으로는 인설어린이예절학교, 전통차향을 따라-무료차예절교육, 전국인설차문화전-차예절경연대회 등이 있다. 기초교육의 경우 3개월(3월 개강) 과정으로 차(茶)생활에 관심 있는 일반인이 참여할 수 있다. 교육시간은 매주 화요일 오전 10시30분부터 12까지며 교육비는 무료이다. 차생활지도자사범 교육은 2년 4학기 과정으로 매년 2월, 8월중 모집하며 한 학기당 교육비가 20만원이다.

최근 남동구 구월동 200여평의 부지에 지상 3층 규모로 2개동 건물로 지어진 **인천예절원**(원장 문정희, 464-8254 / www.incc.or.kr)은 청소년과 시민을 대상으로 한 ‘청소년 예절학교’와 ‘시민문화학교’를 통해 각종 예법과 차 예절을 교육한다. 예절원이라는 이름에서 보듯 대상별, 시간별로 생활예절은 물론 전통문화 체험, 전례놀이 학습, 떡과 한과 만들기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진행한다. 토요일 오후 3시부터 5시까지 다도교실을 마련, 주말을 이용한 강좌도 개설해 놓고 있다.

인천과 차와의 인연

은은한 차향이 어느 구석에서라도 배어나올 듯한 선원사(禪源寺). 강화군 선원면 지산리에 있는 선원사는 1232년 고려 무신시대 최고의 실력자인 최우에 의해서 세워진 사찰이다. 선원사지는 팔만대장경의 판각지로만 알려져 오다가 지난 1994년 고려시대 것으로 보이는 차맷돌과 청자 찻잔 등이 발견됨으로써 선승들이 깨우침을 향한 방법으로 행했던 선차문화(禪茶文化)의 현장으로 관심을 끌었다.

여기서 발견된 차맷돌에 남겨진 글귀가 있었으니 고려시대 문신 이규보(1168~1241)의 흔적이다. 몽고난을 피해 임금을 모시고 이 부근에 살던 이규보가 선원사에 종종 들러 차와 술을 즐겼다고 한다. 차를 마시는 즐거움과 인생을 노래한 40여 편의 차시(茶詩)가 육신은 사라졌으나 마음으로 남은 이규보를 짐작케한다. 강화군 길상면 길직리 산115번지에는 선생의 묘소가 있다.

차를 말하며 마니산 동쪽 기슭에 있는 정수사를 빼놓을 수 없다. 신라 선덕왕 8년(639)에 창건된 이 사찰은 1426년 함허(涵虛·1376~1433)가 절을 고쳐 지을 때 법당 서쪽 산신각 아래 바위틈에서 맑은 물이 솟아났다. 석중천(石中泉)으로 그 맛이 오묘하여 무거운 듯 하면서도 부드러운 맛이 나는 물이라고 한다. 이 물맛 때문에 함허에 의해 절 이름이 정수사(淨修寺)에서 ‘물 수(水)’자가 든 정수사(淨水寺)로 바뀌었을 정도다. 진정한 다인(茶人)이라면 순전히 찻물로만 쓰기 위해 이곳 물을 찾는다.



강화도 정수사

글 _ 지영일 (편집위원 · openme@incheon.go.kr) / 사진 _ 김정식 (자유사진가 · jsjsm@incheon.go.kr)

차 한 잔 | 국어선생님 엄연주씨

쉬어 가고 싶을 때 만나는 한 잔의 차

올해 다풀 선생님 엄연주씨. 현재 서인천고등학교 국어교사인 그녀는 유난스럽지 않은 전통차 애호가이다. 특별히 너스레를 떨만큼 차를 좋아하는 이유가 없지만 즐겨 찻집을 찾고 따스한 온기 품은 찻잔을 사이에 두고 두런두런 이야기 나누는 것이 정겨울 뿐이다.

그녀의 전통차에 대한 인상은 ‘편안하다’ 혹은 ‘쉬어가는 느낌’ 정도로 표현될까. 진하고 강한 맛에 속성으로 만들어 먹는 외래 차와는 달리 손이 가야하고 기다림과 정성의 미학을 겸비한 번거롭지만 외면키 어려운 그것이다.

어쩌면 학습된 탓일 수 있다. 전통차에 담긴 의미와 예법, 조상들이 차를 즐기던 풍류에 대해 들어 머리에 기억했다가 나 역시 그렇게 된 것 같은 ‘귀족적인 착각’ 말이다. 하지만 엄연주씨는 느낌으로 차를 만난다. 편한 친구들과 만날 때면 보통 시내 찻집에 들러, 요즘같은 계절이면 쌍화차를 즐기며 시시콜콜한 사연을 늘어놓는다.

어느 때는 학교에서의 일과 아이들에 대해 반추하며 자기정리의 시간을 갖기도 한다. 서두를 일도 없고 재촉하는 이도 없다. 기다리며, 한 모금 입에 담고 느끼며 빠져들고 생각한다.



1 예진원 최순향 원장의 시연 2 실습에 임하는 교육생 이윤주(25)씨 3 규방다례보존회 교육실 내부 4 인천예절원 전경

어르신 머리 다듬으며 마음도 매만져요



1

서 구 청라쓰레기매립장 근처에 자리 잡은 인천실버타운. 250명의 어르신들이 생활하는 곳이다. 이곳에서 매주 월요일 한 시부터 세 시까지는 어르신들이 꽃단장을 하는 시간이다. 21세기미용학원이미용봉사단이 어르신들의 머리를 매만져 주러 이곳을 방문하기 때문이다. 이정미 원장을 비롯한 이미용봉사단은 매주 6~7명이 팀을 이뤄 이곳을 찾는다. 거동이 불편하신 어르신, 침상에만 누워계시는 어르신들의 머리를 마음에 들게 손질하고 파마도 해 드린다. 처음엔 한 달에 한번으로 시작했다가 2주에 한번으로 바뀌었고 요새는 매주 봉사를 하고 있다.

이 원장이 미용봉사를 시작한 것은 지난 2000년부터. 미용학원에서 학생들을 가르치다 미용학원을 인수하고부터 지역사회에 조금이나마 보탬이 될까하고 본격적으로 시작했다. 2주에 한번씩 중부소방서와 중부경찰서에서 전경과 의경들의 머리를 깎아주고 노인주간보호센터인 사랑의 이웃집, 창영복지관, 피안복지관 등에서 노인들께 파마봉사를 한다. 이밖에도 송월교회 무의탁노인, 영락원, 인천시내 6개 경찰서, 군부대 등에서도 활발한 봉사활동을 하고 있다. 이렇게 무료로 머리를 깎아주는 사람이 한달이면 3천여 명에 이른다. 제물포에서 미장원을 경영하고 있는 이 원장은 봉사활동을 하느라 따로 부원장을 두고 정작 본인은 밖으로만 나돈단다. 아침 일찍 봉사를 나가서 저녁 늦게야 미장원으로 돌아오기 때문이다.

오늘 함께 봉사를 나온 유순례, 송정은, 김미옥, 성정희, 유선숙씨 등은 학원에서 3~4개월씩 미용수업을 받은 이들이다. 그중 60세가 훨씬 넘었다고만 하는 유순례 씨는 순수하게 봉사를 하기 위해 미용기술을 배우기 시작해 학원에서 기술을 연마하고 있는 중이다. 독실한 기독교신자인 그녀는 어려운 노인들, 어린이들의 머리를 깎아주고 싶다는 생각에 문화센터, 복지회관 같은 곳에서 꽤 오랫동안 미용을 배웠고 이왕 깎아주려면 제대로 배워야겠다는 생각에 미용학원에 등록해 미용수업을 받고 있다. 나이가 지긋한 만큼 어르신들의 마음을 누구보다 잘 읽는 그이기에 좀 까탈스럽다거나 꼼꼼한 어르신은 늘 그이 차지다.



2



3 4

1 의식이 없이 누워있는 환자의 머리를 손질하는 이정미 원장(왼쪽) 2 간이 미용실이 된 실버타운 3 어르신들 마음까지 배려하는 세심한 손놀림 4 “할머니 마음에 드세요?”

점심식사를 마치고 실버타운 5층에 작은 미용실이 꾸며졌다. 의자 다섯 개를 배치하고 미용도구들이 놓여지자 기다렸다는 듯이 5명의 어르신이 자리를 잡고 앉았다. 휠체어를 타고 대기하는 서너명의 어르신들은 간병인에게 틈틈이 마사지를 받고 있다.

다섯 명의 미용사의 손이 분주하게 움직인다. 어느 할머니는 “이번엔 빠마 좀 해줘”하고 요청을 하신다. 이정미 원장은 “엄마, 오늘은 바쁘게 오느라고 파마도구를 못 챙겨 왔어요. 다음주에 해드릴게, 오늘은 머리만 다듬으세요.”하고 친근하게 할머니를 달랜다. 머리를 자른 할머니는 천천히 일어나 거울 앞으로 향한다. 이리저리 거울에 머리모양을 비춰보며 마음에 들게 머리가 만져졌는지 살핀다. 옆에서 대기하고 있던 한 할머니가 “아주 이뻐지셨어”하며 인사를 건넨다. “넌 모래면 죽을 텐데 뭘”하시면서도 가는 날까지는 예쁘게 하고 있어야 한다는 할머니시다.

봉사를 나온 학원생들은 실습도 하고 어르신들께 효도도 할 수 있어 누이 좋고 매부 좋은 식이란다. 내가 가진 작은 기술로 세상을 따듯하고 아름답게 가꾸는 이들이 있기에 때서운 겨울 추위도 너끈히 이겨낼 수 있는 것이 아닌가 싶다.

글 _ 정경애 (편집위원 · happyjka@incheon.go.kr)

사진 _ 김정식 (자유사진가 · jsjsm@incheon.go.kr)

웃찾사 i-family 개그콘서트



전국을 휩쓸고 있는 웃
찾사 i-family 개
그콘서트 전국투어
의 뜨거운 열풍이
인천을 강타한
다. 이번 '웃찾
사 i-family 개
그콘서트 전국투

어 in 인천'에서는 인기 절정의 웃찾사를 이끌
어가는 신세대 개그맨들이 총출연하여 TV보다
200% 업그레이드된 그들만의 특별한 개그를
펼친다. '뭐야' '그런거야' '깜찍이 꿈찍이' 등
각 코너마다 최고의 인기를 누리고 있는 개그를
현장으로 옮겨, 방송에서 보여줄 수 없었던 그들
만의 끼와 개인기를 모두 보여줄 것이다.

일시 _ 2월 13일(일) 오후 3시, 오후 6시 30분
장소 _ 인천종합문화예술회관 대공연장
티켓 _ R석(1층) 50,000원 / S석(2층) 40,000원
문의 _ 하늘기획 (322-2121)

어 린 이 국 악 인 형 극 삼년고개



2003년도 춘
천국제인형극
제, 경기국제
인형극제 등
인형극 행사
에서 호평을
받 았 으 며 ,
2004년 문화관광부 무대공연예술사업 고정 레
퍼토리 부문에 선정되는 등 그 작품성을 인정받
은 인형극이다. 우리나라의 전래 동화와 고유의
소리를 바탕으로 한 연출은 어린이들의 시각을
사로잡고 아이들에게 자연스레 국악에 대한 친
숙함을 줄 것이다.

일시 _ 2월 25일(금) 오후 7시 30분
장소 _ 연수구청 대강당
문의 _ 연수구청 문화체육과 (810-7085~7)

오 꾸 다 마 사 시 의 비누방울과 마임



환상적인 비누방울과 함께 동심의 세계로 여행을
떠난다. 어린시절 누구나 한번쯤 장난해보았을 비
누방울 놀이. 작은 비누방울에서 농구공보다 큰
비누방울까지 만들어 내는 환상적인 <비누방울과
마임>은 연인, 가족 등 누구나 함께 즐길 수 있는
공연이다. 1981년 동경마임연구소에서 마임을 시

작한 오후다 마사시는 일본,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유럽의 파리, 암스텔담 거리
공연을 비롯해 세계적인 마임축제의 단골 게스트이다.

일시 _ 2월 17일(목) ~ 22일(화) 평일 오후 7시, 주말(토,일,공휴일) 오후 3시·6시
장소 _ 학산소극장
티켓 _ 일반 10,000원 / 어린이 6,000원
(문화원 회원 : 일반 7,000원, 어린이 4,000원)
문의 _ 866-3993, www.haksanculture.or.kr

악 극 카츄샤의 노래



1993년 <번지없는 주막>을 시작으로 <홍도야 울
지마라>, <굳세어라 금순아>, <울고넘는 박달재>,
<봄날은 간다> 등을 무대에 올린 극단 가교는 전
국에 악극 열풍을 일으켜 왔다.
악극 <카츄샤의 노래>는 심혈을 기울인 대사와 긴
장감 있는 구성 그리고 김주승, 최주봉, 박인환
등 국내 최고의 출연자들의 구성지고 맛깔스런
노래와 재치 넘치는 입담으로 관객들을 울고 웃
기며 아련한 추억 속으로 초대할 것이다.

일시 _ 3월 5일(토) ~ 6일(일) 오후 3시·6시 30분
장소 _ 인천종합문화예술회관 대공연장
티켓 _ R석 50,000원 / A석 40,000원
문의 _ 엔엔터테인먼트 (818-5665)

어 린 이 뮤 지 켈 가가멜과 스머프



스머프는 숲속의 요정들이다. 한 울타리 안에 살
면서 욕심 부리며 다투기도 하지만 악의 무리 앞
에선 서로 힘을 합쳐 당당히 싸우기도 한다. 자유
와 평화를 사랑하는 스머프들은 가가멜을 미워하
는 감정보다 마음을 바꿔 모두를 사랑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는 것을 사람들에게 일깨워 준다.

일시 _ 2월 18일(금) 오전 10시 20분·11시 20분
2월 19일(토) 오후 1시·2시 20분·3시 40분
장소 _ 서구문화회관
티켓 _ 10,000원 (할인 5,000원, 회원 4,000원, 단체 3,000원)
문의 _ 사랑극단 『꼬마세상』 (572-4281, 016-2500-560)

쳐드리세! 쳐드리세! 만복을 쳐드리세!



첫째 마당은 을유년 새해를 맞이하여 올 한해 이루
고자 하는 모든 것들을 성취하기를 기원하는 풍물
패 상쇠의 축원덕담과 관객들이 한 해 소원을 적은
소원지를 달집에 꽂아 정초의 소원을 빈다. 둘째
마당은 잔치마당 예술단의 타(打)락(樂) 공연이다.
태동, 파워코리아, 정통의 소리, 퓨전난타, 모듬북,
대동놀이로 구성되며 연주자와 관객이 따로 노는 것이 아니라 북을 두드리는 타
(打)연주자나 이를 즐기는 락(樂) 관객이 모두 신명나는 한마당을 펼친다.

일시 _ 1월 28일(금) ~ 2월 25일(금) 매주 금요일 오후 7시 30분
장소 _ 풍물전용극장 잔치마당 소극장
티켓 _ 일반 10,000원 / 학생 5,000원
문의 _ 풍물패 잔치마당 (501-1454)

뉴 에 이 지 피 아 니 스톤 데이빗 란츠 내한공연



80년대 후반 우리나라에 뉴에이지라는 생소
한 장르를 대중화시킨 뉴에이지계의 거장 데
이빗 란츠(David Lanz)의 내한공연. 조지 윈
스턴의 'Thanksgiving과 함께 뉴에이지 사
상 양대 명곡으로 평가되는 데이빗 란츠 최고
의 걸작 'Cristoforis Dream'을 비롯하여
'Return to the Heart', 'Leaves on the
Seine', 'A Whiter Shade of Pale' 등을
연주하고 소프라노 김원정이 협연하여 발렌
타인데이 연인들을 위한 아름다운 선율을 들
려줄 것이다.

일시 _ 2월 12일(토) 오후 3시
장소 _ 인천학생교육문화회관 싸리재홀(대공연장)
티켓 _ 일반 R석 20,000원 / S석 10,000원 (학생 50% 할인)
문의 _ 인천학생교육문화회관 (760-3447~8)

해설이 있는 팬플루트 연주회



바람의 소리, 자연의 소리, 대나무에서 울려퍼지는
듯한 팬플루트의 청아한 소리. 해설을 곁들여 열리
는 이번 연주에서는 오카리나와 아코디언의 협연
도 이루어져 복잡한 현대인들에게 청량제 같은 신
선함 을 줄 것 이 다. Amazing Grace,
Humoreske(유모레스크), La paloma(비둘기), 이별의 노래(가곡), Time to say
good bye 등 귀에 익은 곡들을 연주한다.

일시 _ 2월 26일(토) 오후 3시
장소 _ 인천학생교육문화회관 싸리재홀(대공연장)
티켓 _ 무료
문의 _ 760-3447~8

부 평 문 화 사 랑 방

겨울방학 특별초청 공연

부평문화사랑방은 청소년을 위한 '겨울방학 특
별초청 공연'을 준비한다. 『Exciting Korea, 신
명나는 한국』은 전통타악예술원 '공간' 과 댄스
컴퍼니 '댄스앤드럼' 이 함께 펼치는 무대이다.
팝락밴드 『Soul N Gene』은 록 음악의 강렬한
비트를 쉽고 부드러운 사운드로 소화해 내고 있
는 그룹으로 앨범의 타이틀 곡 '아름다운 너'가
강동원의 카페라떼 CF 배경음악과 영화 <내 남
자의 로맨스>에 OST로 사용되었다. 일본의 마
임이스트 오후다 마사시의 『환상적인 비누방울
의 세계』는 판토마임과 마술 공연으로 관객 모
두를 동심의 세계로 빠지게 할 것이다.

- **Exciting Korea, 신명나는 한국**
일시 _ 2월 4일(금) 오후 7시
출연 _ 댄스앤드럼(DD) 전통 타악예술원 '공간'
관람료 _ 무료
- **Pop Rock Band**
<쏘울 엔 진 / Soul N Gene>
일시 _ 2월 18일(금) 오후 7시
출연 _ Soul N Gene
관람료 _ 무료
- **환상적인 비누방울의 세계 <오후다 마사시>**
일시 _ 2월 25일(금) 오후 7시
출연 _ 오후다 마사시
관람료 _ 무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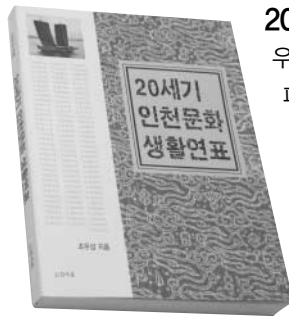


※ 상기 일정은 공연장 사정에 의해 변경될 수
있으며, 공연관람 희망시 사전 전화문의(예약)
바랍니다.
문의 _ 부평문화사랑방 (505-5995)

일	화	수	목	금	토	일
7	1	2	3	4	5	6
			문화여성합창단 정기연주회 오후 7시 30분 중합문화예술회관 소공연장 초대 428-8660	신명나는 한국 오후 7시 부평문화사랑방 무료 505-5995 공물 <만복을 차드리세> (~25) 매주 금요일 오후 7시 30분 진치미당 소극장 1만, 5천 501-1454	국악이랑 친구하기 오후 4시 / 계양문화회관 공연장 무료 / 551-6602 어린이뮤지컬 <피노키오> (~13) 오후 2시, 4시 / 중합문화예술회관 소공연장 / 1만 / 031-838-5530 데이빗 란초 내한공연 오후 3시 / 인천화성교육문화회관 씨리제홀 / 2만, 1만 760-3447~8	웃찾사 i-family 개그콘서트 오후 3시, 오후 6시 30분 중합문화예술회관 대공연장 R석(총) 50,000원, S석(2층) 40,000원 322-2121
14	15		17 오후다 마시시의 <비누방울과 마음> (~22) 평일 오후 7시 토·일·공휴일 4시, 7시 화산소극장 866-3993	18 Soul N Gene 오후 7시 부평문화사랑방 무료 505-5995	19 전호숙바이올린독주회 오후 7시 중합문화예술회관 소공연장 1만 888-0808 가족뮤지컬<피터팬> (~20) 오전 11시, 오후 2시, 4시 중합문화예술회관 대공연장 1만2천, 1만 322-717	27 
21	22 효정주니어코랄챔버오케스트라 정기공연 오후 7시 30분 중합문화예술회관 대공연장 1만 552-5210	23 	24 인천기독교소년소녀합창단 정기연주회 오후 7시 30분 중합문화예술회관 대공연장 1만 / 818-8829 부평O8합창단 정기연주회 오후 7시 중합문화예술회관 소공연장 무료 / 547-4972	25 시립교향악단 실내악연주회 오후 7시 30분 420-2786 국악인형극 <삼년고개> 오후 7시 30분 연수구청대강당 810-7085 비누방울의 세계 오후 7시 / 부평문화사랑방 / 무료 505-5995	26 필리이합창단 정기연주회 오후 7시 / 중합문화예술회관 대공 연장 / 무료 / 017-356-8301 마임콘서트 오후 3시, 6시 / 계양구청스낵수련 관공연장 / 무료 / 548-7646 김제희의 전통춤 첫 번째 이야기 (~27) 오후 5시 30분 / 중합문화예술회관 소공연장 / 초대 / 527-6048	28 
28	<p>디지털뮤직박물관 오후 4시, 7시 계양문화관공연장 2천 551-6602</p> <p>정월대보름 맞이 민속축제 2월 23일(수) 오후 2시 ~ 7시 인천도호부청사 공연행사 : 경기민요(안선균의 인천국악예술단), 평택농악, 인천국악예술단, 은울탈춤, 노중선 청소년풍물단, 삼현육각 평화예술단</p> <p>특별공연 : 범패와 작법무 등 인천무형문화재 찬조출연 체험행사 : 민속놀이, 줄넘기, 토정비결보기, 목공예, 기호싸주기, 연날리기 대회행사 : 가족대항 옷놀이, 제기차기, 투호 대회 특별행사 : 소지꽃아태우기, 목죽놀이, 연날리기 시연, 유아연액마이풍물굿</p>					

※ 공연 및 전시는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관람전 반드시 전화로 확인하세요.

새로 나온 인천책 I



20세기 인천 문화생활 연표 / 조우성 지음 / 국판 / 310쪽 / 2만원

우리가 살아온 지난 20세기를 한눈에 볼 수 있는 연표(年表)가 나왔다. 시인이자 향토사학자인 조우성씨(57)가 펴낸 '20세기 인천문화생활연표'는 책 제목 그대로 우리가 살아온 지난 20세기 인천사(仁川史)를 '문화'와 '생활'에 포커스를 맞춰 연월일(年月日)별로 역사적 사실을 일목요연하게 정리한 책이다. 특히 이 책은 매 쪽마다 그 해에 있었던 역사적 사실을 입증하는 희귀 사진 3백69장을 실어 '사진으로 보는 20세기 인천 생활 문화사' 역할을 톡톡히 해내고 있다. 개항 직후의 인천감리서(仁川監理署·지금의 인천시청에 해당)의 선명한 사진을 필두로 명성황후 국장 때의 인천봉도단의 모습, 국내 최초로 공개한 개통 당시의 경인선 열차, 멕시코 이민을 실어 날랐던 영국 화물선 일포드호, 초창기 주안 천일염전 전경, 옛 축현역 사진, 인천부민이 일제에 헌납했던 비행기 '인천호'의 사진 등은 이 책을 통해 처음 접하는 자료들로 마치 보물 창고를

하다. (문의 _ 019-310-2386)

인천역사문화총서⑥~⑭ / 인천광역시 역사자료관 역사문화연구실

인천광역시 역사자료관 역사문화연구실에서는 2003년 <인천역사문화총서>5권을 출간한데 이어 지난해 말<인천역사문화연구총서>⑥ 권~⑭권 의 인천사 자료집을 발간했다. 이번에 발간된 <인천역사문화총서>는 모두 9권으로 ⑥ 인천의 섬,은 인천의 무인도와 유인도를 포함하여 섬 사진과 역사유적사진 및 민속사진들을 적절히 배치하여 종합적이고 체계적으로 정리했다. ⑦ 옛날 옛적에 인천은,은 인천지역에 전해 내려오는 민담과 전설, 설화를 엮은 책으로 인천의 옛 모습과 뿌리를 찾을 수 있다. ⑧ 미군정기의 인천자료」는 미군정기에서 정부 수립 전까지 벌어졌던 사건·사고를 국사편찬위원회 한국사 데이터베이스 중 ‘자료대한민국사’에서 발췌,정리했다. ⑨ 역주 인천부읍지」는 1899년(광무3년) 발생한 인천부읍지를 비롯, 동국여지지(1656년), 여지도서(1760년경), 대동지지(1863년경) 등 6종의 읍지를 번역해 담고 있다. ⑩ 인천역사(1호)」는 1년에 한차례씩 발간하는 Re-View誌 형식의 학술잡지이고 ⑪ 역주 인천사정,(靑山好惠)은 1892년 출간될 당시 조선신보사에 근무하던 아오야마 고헤이지(靑山好惠)와 개항 초기 인천의 모습을 다룬 안내서로 쓴 책이다. ⑫ 역주 인천개항 25년사」(信夫淳平)와 ⑬ 역주 인천개항 25년사」(加瀬和三郎) 두 권은 모두 개항이후 인천의 변화를 담고 있다. ⑭ 근대의 이민과 인천」은 하와이 이민사를 다루었다. (문의 _ 440-3497~8)



작가들 / 인천작회의 발행 / 도서출판 작가들 / 8천원

인천작가회의(민족문학작가)회의 인천지회, 회장 신현수)가 종합문예지 「작가들」(도서출판 작가들) 11호(2004년 겨울호)를 출간했다. 창간호부터 10호까지 1년에 두 번 발행되었던 「작가들」은 이번 호부터 계간으로 전환해 인천 문학만의 담론과 사회적 실천의지를 담아낼 수 있는 안정적인 틀을 갖추게 됐다. 또한 판형에서도 시집 크기로 변화를 주었고 독자들이 좀더 쉽게 가지고 다닐 수 있도록 꾸밈을 최대한 배제해 소박성을 강조했다. 이번 호에서는 현장통신 ‘월미도는 잘 있는가’와 특집 ‘도시공간과 문학’을 통해 지역문제에 대한 관심과 참여, 발언을 수행해 눈길을 끈다. (문의 _ 011-9931-7659)



우리지역 바로 알기 답사기행

해반문화사랑회에서는 내고장 인천의 과거와 현재를 알기 위해 시작한 우리지역바로알기답사 자료 (2000년~2004년)를 토대로 각 지역별 문화유산을 정리한 동영상 CD를 제작했다. '인천의 시작 미추홀', '근대문화의 발상지 개항장', '부평의 문화유산' 등 인천을 5개 지역으로 나누어 쉽게 문화유산 접할 수 있도록 만들었다.

문의 _ 해반문화사랑회 사무국 (761-0555)

인천의 변신은 ‘무죄’

인천은 진화한다. 앞으로 10년 동안 약 100조원에 달하는 거대한 건설 프로젝트들이 우리시에서 진행될 예정이다. 올부터 시작될 각종 개발사업이 순서를 기다리고 있으며 그 사업이 진행되면서 인천의 모습은 차츰 변화에 변화를 거듭할 전망이다. 그 가운데 몇 가지를 간단하게 소개한다.

#1 동북아 경제중심 도시, 지역균형발전 ‘화두’

역동하는 인천이 세계적으로 주목받는 이유는 성장 잠재력과 이후의 파급효과 때문일 것이다. 우리시는 올부터 대내·외적으로 동북아의 관문도시로서의 면모를 확실히 다듬어 간다는 비전을 세워 놓고 있다. 변화의 코드는 크게 국제도시로서의 면모를 새롭게 하면서 ‘동북아 경제중심 도시로의 도약’과 ‘지역간 균형발전’으로 나눌 수 있겠다. 이를 통해 향후 연간 3만여명의 일자리 창출과 산업기반 시설 재편 등으로 지역경제 활성화는 물론 국가경제 부흥의 견인차 역할을 전담한다는 계획이다. 우리시는 2008년 이후 현재 전국의 4.9%인 인천의 GDP가 10%로 신장되고 경제자유구역 건설에 따른 전후방 유발효과로 매년 GDP의 1% 상승과 함께 0.2~0.3%의 실업률 감소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시화호에서 바라본 송도신도시

#2 제2연륙교 건설

왕복 6차선의 제2연륙교는 총연장 21.7Km(교량 12.3Km, 연결도로 9.4Km), 총사업비 1조7천여억원(교량 1조300억원, 연결도로 7천억원) 규모의 영국 AMEC사가 참여하는 외자유치사업이다. 이 다리는 송도신도시와 인천국제공항이 있는 영종도를 잇는 교량으로 송도와 영종 경제자유구역 개발에 필수적인 기반시설이다. 정부와 우리시가 인천경제자유구역으로 지정·개발하겠다는 구상 속에 첨단 비즈니스 중심도시 건설과 더불어 인천국제공항과 인천항을 연계 발전시켜 인천을 동북아의 물류중심도시로 만들겠다는 핵심 과제가 내포돼 있다. 이를 위한 물류기반시설이자 핵심 이동로가 바로 제2연륙교이다.



#3 지속적인 도시개발사업 추진

지역간 불균형 개발이 날로 심화되어가는 현실을 감안, 지속적이고 효과적인 도시개발사업을 강력하게 추진한다. 가정 뉴타운 사업을 비롯, 검단신도시, 인천대 이전부지, 수도권매립지내 드림파크, 용현·학익지구, 삼산지구, 북성·만석지구, 소래·논현지구 등 12개 전략지구를 선정해 지구별 특색에 맞게 다양하게 개발한다. 이외에도 송림2동, 주안2동, 산곡1동, 부평5동 등 4개 구역에 대한 주택재개발사업과 6개지구 126만평에 대한 택지개발사업, 토지구획정리사업 등이 그것이다.

#4 광역 및 간선교통망의 확충

편리한 도시인프라 구축을 위해 광역 및 간선교통망 확충사업에 적극 나선다. 우선 광역 도시철도망 구축을 위해 경인선 북복선 전철을 올해말 개통하고 수인선 복선 전철 2008년 12월, 인천국제공항철도 2007년 3월, 인천도시철도 1호선 송도신도시 연장 구간 2008년 6월말 각각 개통할 계획이다. 경제자유구역 지원을 위해서는 2008년까지 남동구 고잔동-제2연륙교간 8.2Km 구간을 왕복 6차선에서 12차선으로 확장한다. 수도권 제2외곽순환고속도로 송도신도시와 송포IC 구간 33.4Km를 오는 2010년까지 건설한다. 아울러 시흥시 논곡동-남동구 고잔동 14.27Km의 제3경인고속도로 구간은 2009년까지 놓이게 된다.

이밖에 도심지 교통난 해소를 위해 만월산 터널공사(남동구 간석동-부평구 부평동 구간 2.87Km, 올 7월 완공), 남항주변 도로개설(남항연결도로개설 등 8건 5.87Km, 2008년 완공), 인천-부천간 도로개설(계양구 효성동 부천시계간 21Km, 2006년 완료) 등의 도로사업이 진행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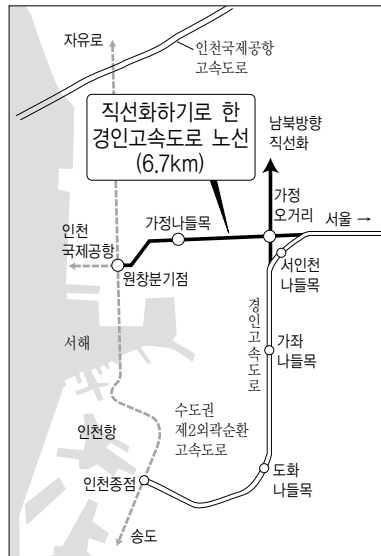


#5 경인고속도로 직선화와 가정오거리 뉴타운 사업

굴곡노선, 만성체증에 시달리는 경인고속도로의 물류기능을 극대화하고 도심발전을 촉진하게 될 경인고속도로 직선화사업이 시행된다. 특히 국제 금융과 엔터테인먼트의 요람이 될 청라지구를 서울과 직접 연결하고 가정 오거리 주변에 뉴타운을 개발하여 도시공간구조를 재편함으로써 인천국제 공항-경제자유구역-서울 및 수도권지역을 효과적으로 연결, 막대한 시너지효과가 기대된다. 계획에 따르면 직선화 노선은 서인천나들목에서 경제 자유구역청인 청라지구를 연결하는 6.7km 구간이다. 우리시는 경인고속도로 서인천나들목-청라지구 구간을 이미 이 지역에 짓기로 계획돼 있는 일반 도로 2개를 확장해 연결시키는 방식으로 건설할 계획이다. 시는 서인천 나들목에서 가정오거리까지는 이미 계획되어 있는 일반 도로를 확장해 고속도로로 만들고 가정오거리에서 청라지구를 연결하는 구간도 지난해 경제 자유구역 지정 때 토지이용 계획에 포함, 건설 예정인 도로를 확장한 뒤 두 도로를 연결할 방침이다.

이 구간은 폭 70m 규모의 12차로로 건설되며 기존 경인고속도로 서인천나들목-인천중점 간 10.5km에 대해서는 일반도로로 전환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이밖에 우리시는 서인천나들목 인근 가정오거리 일대 28만평에 업무 및 상업지구, 주거지를 조성할 ‘가정 뉴타운’ 계획도 세워놓고 있다. 이는 국제수준의 중심상업 및 주거기능의 뉴타운 조성 사업으로 경인고속도로 직선화와 연계한 입체도시를 건설한다는 취지이다.



#6 푸르름이 가득한 녹색도시 조성

‘Green 인천 300만그루 나무심기’ 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함으로써 녹색도시화에 박차를 가하고 생활권 주변 공원 확충 및 이용시설의 수준을 향상시켜나갈 계획이다. 2004년말 현재 375만본 식재를 완료, 이미 목표 수치를 넘어섰지만 이에 그치지 않고 산림휴양공간 조성 확대와 산림자원보호 정책도 병행하게 된다. 주택가 자투리땅과 공공기관을 우선적으로 생활권 집중 녹화대상으로 하며 총 93개소에 대한 담장허물기와 나무심기 사업을 대대적으로 펼친다.

생활권 주변 공원 확충 차원에서 인천대공원과 월미공원 등 거점공원 8곳을 집중 조성하고 근린공원 4개소와 시설녹지 1개소를 확충한다. 산림자원 보존과 휴양기능 확대를 위해서는 인천대공원 수목원 조성, 문학산 등 주요 등산로 정비, 도시생태숲 조성, 산자락 불법훼손 방지 등의 사업을 세워놓고 있다. 한편 연안친수공간 조성을 위해 갯골유수지 주변 친수공간 조성, 아암도해안공원 생태탐방로 설치에 나선다.



#7 인천의 랜드마크 ‘국제컨벤션센터’ 건설

오는 2007년말까지 1억2천500만달러가 투입될 인천 송도경제자유구역에 초대형 국제컨벤션센터가 2004년 11월 11일 착공됐다. 국제컨벤션센터는 송도신도시가 경제자유구역으로 지정된 이후 첫 개발사업으로 그동안 내놓을 만한 컨벤션센터가 없었던 우리시로서는 인천의 상징이 될 뜻깊은 건축물을 갖게 되는 셈이다. 오는 2012년까지 송도신도시 1, 3공구 167만평에 들어설 국제업무단지를 세계적인 국제업무도시로서의 비전을 제시할 첫 시동을 걸었다는 점에서도 의미가 크다. 인천의 랜드마크 역할을 하게 될 센터는 3천여평에 전시장 및 1천500여명을 수용할 수 있는 대형연회실과 26개의 크고 작은 회의실이 들어서게 되며 연면적 1만2천653평에 지하 1층, 지상 2층의 초현대식 건물로 조경면적만 7천77평에 달하고 475명의 주차시설 등 다양한 시설을 갖추게 된다. 완공된 이후 2008년 인천시에 무상 기증된다. 또 올해 컨벤션센터 옆에 연면적 17만3천341평에 1천700가구가 입주할 수 있는 지하 2층, 지상 60층 규모의 주상복합건물을 착공해 분양에 나선다는 계획도 마련돼 있다. 이처럼 국제컨벤션센터 기공식은 경제자유구역 개발이 본격 시작됐다는 뜻으로 센터가 완공되는 2008년에는 송도가 세계 우수기업의 아시아 태평양 본부를 비롯해 쇼핑몰과 병원 등 65개의 빌딩이 들어서 동북아 비즈니스 중심도시로 거듭날 수 있을 것이다.

(※ 구도심 재개발사업과 관련해서는 3월호에 좀더 자세한 내용을 다룰 예정입니다.)



글 _ 지영일(편집위원 · openme@incheon.go.kr)

인터뷰 | 인천시 도시계획상임기획단 정두용 단장

인천의 그림 바꿀 2020 도시기본계획

우리가 중점 추진하고 있는 ‘2020도시기본계획’이란 동북아의 중심도시로서의 인천이 지향해야 할 바람직한 미래상을 제시하고, 도시계획을 통한 장기적인 도시의 발전 방향과 도시전략을 제시하는 계획을 말한다. 기본적인 도시공간을 포함한 환경, 사회, 경제적 측면을 포괄하여 도시환경의 변화를 예측하고 대비하는 종합계획인 셈. 2020도시기본계획에는 송도, 영종, 청라 3개의 경제자유구역과 인천국제공항, 인천항 등의 도시공간구조의 개편에 대한 절대적인 필요성이 반영되어 있다. 아울러 삶의 질 향상과 함께 쾌적하고 아름다운 환경에 대한 시민의 목소리가 담겨 있다.

향후 인천이 2020도시기본계획을 통해 변화하는 모습을 세 가지로 요약하면, 첫 번째로 구도심권은 역사기능을 중심으로 도시의 지속적인 발전을 위해 도시재생차원에서 접근하고, 두 번째 구월부도심권은 인천시청, 종합문화예술회관, 터미널 등과 함께 각종 기업의 지사를 유치하여 행정, 업무, 문화 중심지역으로서의 도시기능 강화를 통해 도심대권으로 성장할 것이다. 세 번째로는 경제자유구역을 중심으로 하는 동북아의 경제중심권으로서의 공간재편을 통해 새로운 도시로 성장할 것이다. 여기에 도시의 혈관이라 할 수 있는 교통부분에서는 도시내부연결망의 비중을 강화하고 지역간의 연결도로망 정비를 통해 광역교통체계를 구축하여 지역 상호간을 연결하는 사통팔달의 교통체계를 확립해 나갈 것이다.



우리아이들 ‘함께’ 키워요

입시지옥은 유아들도 예외는 아니다. 학습지니 방문교사니 하면서 돌 무렵부터 학습(?)을 시작하는 아이들도 여럿이다. 우리아이들을 입시지옥에 일찍부터 내몰 수 없다는, 아이는 아이답게, 지식위주의 교육보다는 인성을 키우는 교육을 시키겠다는 부모들이 늘어나면서 공동육아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우리시에서도 공동육아 방식의 어린이집을 몇 곳 찾아볼 수 있다.



부모도 함께 자라는 공동육아

공동육아란 뜻을 같이하는 사람들이 필요한 기금을 출자해 어린이집을 세우고 공동으로 운영하기에 붙여진 이름이다. 아이를 맡기고 그에 상응하는 보육료를 지불하는 것에서 끝나는 기존의 어린이집이나 유치원과는 달리 학부모가 어린이집운영의 공동 주체가 되어 교사의 채용과 설립에 필요한 장소선정은 물론 시설, 아이들의 교육프로그램이나 먹거리, 어린이집 생활 전반에 대한 의견을 나누고 조절해 육아의 질을 높여가는 열린 교육의 장이다. 학부모가 공동으로 운영을 하다 보니 이익창출 없이 예산을 운용할 수 있어 아이들의 먹거리는 유기농 식품을 이용하게 하고, 자연친화적인 놀이문화를 만들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공동육아와 기존의 유치원 어린이집과 다른 점은 부모가 함께 육아를 경험함으로써 부모도 함께 성장한다는 것이다. 총회나 방모임, 날적이 등을 통해 교사와 부모가 함께 육아에 참여하고, 아이의 교육 프로그램에 부모가 직접 관여할 수 있다.

‘공부’ 보다는 ‘놀이’

공동육아를 하는 어린이집 교육의 가장 큰 특징은 우리의 풍물, 세시풍속 알아보기 등 우리 것을 알아가는 하나의 작업이라는 점이다. 또한 자연을 우리 삶의 한 부분으로 인식하기 위해 직접 자연을 찾아다니는 나들이, 들살이 등을 위주로 어린이집 생활이 진행된다.

교사와 교사사이, 아이와 아이사이, 교사와 아이사이의 관계는 어느 한쪽이 권위나 우위를 가지지 않고 평등한 관계를 지향하는 것도 커다란 특징이다. 그래서 교사와 학부모들은 별명을 짓고 어린이집에서는 별명으로 불리며 아이도 교사에게 반말을 사용한다. 집에서 아이들이 엄마에게 편하게 반말을 사용하듯이 집처럼 편안하게 느끼게 하기 위해서다. 그래서 아이들은 저녁에 집에 갈때도 선생님에게 ‘집에 다녀올게’ 라고 말하기도 한다.

통합교육 역시 공동육아 교육원칙 중 하나이다. 연령별, 영역별, 성별 통합은 물론 장애우와의 통합교육으로 나이 차이에 의해 상·하로 나뉘는 권위를 거부하고 각각의 개성과 인격을 존중하며 정상과 비정상, 장애와 비장애라는 일종의 편견과 독선을 넘어선다. 또 다른 특징 중 하나는 ‘아마활동’. ‘아마’란 아빠엄마의 줄임말로써 학부모가 교육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방법이다. 학부모는 매일 돌아가면서 청소아마에 참여해야 하고, 교사가 월차휴가나 교육 등으로 자리를 비울 경우에는 순서대로 일일교사로 아마활동을 해야 한다.

‘공동날적’도 특징적. 날적이란 ‘일기’를 뜻하는 말로 그날 그날 있었던 일들과 아이들의 모습, 반응 등을 일기형식으로 적어서 부모에게 보내고 부모는 그에 대한 답장을 적어 주고받는 것이다. 아이들의 어린이집 생활을 부모가 상상하고 이해하는데 큰 도움이 된다.

공동육아 어린이집은 부모들이 협동조합을 구성하고 출자금을 내 설립된다. 따로 모집시기가 정해져 있지 않아 자리가 날 때까지 예비조합원으로 기다려야 하고, 300~500만원 안팎의 조합원 출자금도 부담해야 한다. 출자금은 어린이집의 터전을 마련하는데 사용되며, 탈퇴할 때 돌려받는다. 또 가입비는 일종의 입학금으로 필요한 물품 등을 구매하는 비용인데 평균 20~50만원 선이고 연령별로 차이가 나는 보육료는 달마다 20~50만원 가량 된다.

내 집처럼 편안하게 해맑은어린이집 (546-2889)



지난 98년 학부모들이 출자해서 만든 공동육아어린이집인 해맑은어린이집은 아이들이 가정에서 생활하는 것과 가장 비슷한 환경을 꾸미고 자연 속에서 놀면서 자라는 아이들로 보육하고 있다. 아침 7시 반부터 등원을 시작한 아이들은 모동회의를 통해 그날 할 일에 대한 의견을 나누고 결정한다. 오전 일과는 주로 나들이다. 친구들과, 선생님과 손을 잡고 떠돌고 구경하며 나들이를 하는 동안 아이들은 자연을 배우고 사회를 익힌다. 점심 후에는 쉬는 시간이다. 낮잠도 자고 생각도 하며 자유롭게 보낸다. 오후에는 접고, 자르고, 만들고, 요리도 하며 논다. 놀이도 주로 전통놀이가 많다. 방과후 교실도 운영한다. 해맑은어린이집 출신(?)의 초등학교생들이 학교에 다녀온 후 오후 시간을 보낼 수 있다.

해맑은어린이집에서 공동육아에 뜻을 같이 했던 학부모들은 이제 대안 초등학교에도 관심을 보이고 있다. 공교육에 대한 불신이 팽배해지면서 학교에 다니는 아이들이 보다 자유롭게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인천 대안학교 준비모임'을 만들고 협동조합 형태로 학교를 설립해 운영하겠다는 계획이다.

좋은 어린이집을 만들자 희망세상어린이집 (522-4630)



육아를 친정엄마에게 부탁하기도 미안하고 어린아이를 시설에 맡기기도 불안한 엄마들이 우리 힘으로 아이를 제대로 키워보자고 마음을 모으고 지난 96년 사무실 한켠에 장소를 마련해 아이들을 돌보기 시작한 것이 희망세상 어린이집의 시작이다. 그러던 것이 뜻 맞는 사람들끼리 어린이집을 한번 세워보자는 생각에서 보육교사, 간호사, 선생님 그리고 학부모 등 전문가들이 모여 수십 차례에 걸친 회의 끝에 2000년 9월 부평3동 한켠에 3층짜리 번듯한 어린이집으로 태어났다. 희망세상어린이집의 특징은 부모의 소득에 따라 차등 보육료를 적용하고 있다는 것. 부모의 소득 수준에 따라 A등급에서 E등급까지 보육료가 나뉘진다. 그렇다고 확실적으로 보육료를 책정하는 것이 아니다. '희망등급' 제도가 있어서 부양가족이나 부채 등을 고려해 희망보육료를 신청하면 보육료조정위원회에서 조정을 받을 수 있다.

또 하나의 특징은 장학회원 제도. '좋은 어린이집을 만들기 위한 인천시민협동조합'이라는 이름으로 150여명의 회원들이 마음을 모아 희망세상어린이집을 설립한 것이 그것이다. 출자금 마련이 어려운 가정은 장학회의 심의를 받아 출자금을 내지 않아도 조합원이 될 수 있고 부평 3동에 거주하는 어린이는 출자금과 조합 가입비를 내지 않고 어린이집에 올 수 있도록 하고 있다. 희망세상어린이집은 현재 3개월의 영아부터 초등학교 5학년까지의 방과후반 등 모두 11개의 방에서 130명의 어린이들이 생활하고 있다. 매일 저녁 10시반까지 저녁교실을 운영하고 있는 저녁교실 교사를 포함해 모두 27명의 교사가 아이들을 돌본다. 또 지역 어린이를 위해 개방 프로그램으로 '친구들아 같이 놀자'를 매월 둘째 토요일 오후 2시 희망공원에서 열고 있다. 부평3동 어린이는 누구나 기쁘고 씩씩한 마음만 가지고 함께 할 수 있다.

문학산 정기 이어받자 너랑나랑어린이집 (437-5516)



남구 문학산 자락에 자리잡은 너랑나랑어린이집은 공동육아를 시작한지 올해로 4년차를 맞았다. 푸른 생협 조합원 중에서 공동육아에 관심을 가진 엄마들이 모임을 갖기 시작해 2001년 품앗이 형태로 처음 문을 열었다. 지금은 14가구가 조합원이 되어 18개월에서 초등학교 3학년까지 모두 12명의 아이들이 생활하고 있다. 아이들은 12명에 불과하지만 교사는 영양교사까지 모두 5명이나 된다. 교사의 비율이 높다보니 그만큼 아이들에게 관심을 더 갖게 되는 것은 당연지사. 아이들이 7시 반부터 어린이집을 찾아오면 맞이하기, 전체 통합 놀이를 한 후 주로 나들이를 한다. 어린이집이 터를 닦은 연경산 일대를 산책하고 향교, 문학경기장, 서점, 동네놀이터 등지를 마음내키는 대로 둘러보는 나들이다. 나들이 후에는 점심식사를 하고 자유로운 놀이와 낮잠 등의 프로그램이 이어진다. 어린이집이 아직 뿌리를 든든하게 내리기 전이라서 조합원 운영에 좀 여유가 있는 편이다. 공동육아에 관심이 있는 사람이라면 수시로 대기자 면담을 할 수 있다.

글 _ 정경애 (편집위원 · happyjka@incheon.go.kr) / 사진 _ 김정식 (자유사진가 · jsjsm@incheon.go.kr)

이색 공동육아

장애아 방과후 교실 힘찬터 (283-3303)



힘찬터는 공동육아의 필요성과 당위성에 뜻을 같이하는 장애아의 부모들이 아이들의 특성에 맞게 만든 방과후교실이다. 장애아동이기 때문에 개인과 개별 가족들이 감당하기에 어려운 여러 영역, 즉 보호와 교육은 물론 학교 교육을 보완할 수 있는 공동체를 만들어 장애, 비장애아 통합공동체의 한 모델을 제시하고 있는 현장이다. 장애아동들은 계속해서 재활치료를 받아야 하지만 복지관에서 수혜를 받을 수 있는 기간은 6개월로 한정돼 있기 때문에 지속성을 가질 수 없어 우리 힘으로 아이들을 가르치고 운동시켜 보자고 뜻을 모은 데서 시작됐다. 1급~3급까지 정신지체, 발달장애 등을 가진 아이의 부모 8명이 300만원을 각각 출자해 힘찬터를 마련하고 방과후 교실과 방학중 계절 학교 등을 자체적으로 운영하고 있다. 학교수업을 마친 아이들이 힘찬터에 모이면 악기다루기, 요리, 체육, 바느질 등 아이들이 살아가는데 최소한으로 필요한 것들을 배울 수 있는 프로그램을 진행한다. 방학기간 중에는 계절학기를 열고 풍물, 수영, 컴퓨터, 태권도, 피아노, 미술, 명상, 요리 등을 함께 배운다. 힘찬공동육아공동체의 초대대표 이경희 씨는 "우리 모임이 정식 어린이집도 방과후 교실도 아니지만 장애아동을 공동육아의 형태로 키우는 모델이 되었으면 좋겠다"며 인천 지역 곳곳에 이런 모임이 많이 생기길 바라는 마음이다.

공동육아의 장점만 채택한 인천생협예술어린이집 (529-9479)

인천생협에서 운영하는 예술어린이집은 공동육아어린이집과 기존 어린이집의 중간 형태를 띠고 있다. 예술어린이집이 생긴 것은 지난 91년. 그 경험과 노하우를 바탕으로 2002년 생협과 통합해 인천생협예술어린이집으로 다시 태어났다. 생협예술어린이집은 인천생협의 조합원만을 대상으로 한다. 따라서 3만원의 가입비로 인천생협의 조합원이 돼야하고 아이를 맡길 때 200만원을 조합원 출자금으로 내야 한다. 다른 공동육아어린이집과 달리 가입비는 따로 없고 입학금 6만원만 내면 된다. 생협예술어린이집은 영아전담 어린이집으로 3개월부터 만 4세까지의 아이들만 돌보고 있다. 공동육아어린이집처럼 조합원으로 출자해서 아이를 맡기는 만큼 부모회, 교사회, 운영회, 전체회의 등 여러 회의체가 있어 어린이집 운영 전반에 관한 것을 함께 의논하고 결정한다. 단, 보육비 등은 기존 어린이집처럼 보조금을 받아 운영되는 어린이집이라 법에서 정한 보육료 규정에 따른다. 생협에서 운영하기에 먹거리를 유기농으로 이용하는 것은 당연한 일. 현재는 21명의 영아들이 6명의 교사와 함께 생활하고 있다. 아침 7시반에 등원을 시작한 아이들은 보통 7시 반까지 어린이집에서 지내고 8시까지 연장도 가능하다.

굿인천 굿뉴스

푸른인천 300만그루 나무심기 명칭 변경



우리시가 중점 추진하고 있는 도시녹화 사업 명칭을 당초 ‘푸른 인천 300만그루 나무심기’ 사업에서 ‘Green 인천 300만그루 나무심기’ 사업으로 변경했다. 국제적 친환경도시를 나타내는 의미로 영문을 모두에 사용키로 한 것이다. 300만그루는 260만 시민 한사람이 한그루 이상 심어나가자는 시민참여 녹화운동을 의미한다. 우리시는 2004년말 현재 375만본 식재를 완료했다.

문의 _ 시 녹지조경과 440-3662

계양구 효성동 주거환경 개선사업 시동

우리시는 그동안 용적률 및 층수제한에 묶여 개발이 지연되었던 계양구 효성동 123번지 일원의 무허가 불량주택(약632동)의 주거환경 개선사업을 본격 추진한다. 시에서는 사업규모를 6만6천여평에서 12만여평으로 확대하는 한편 개발대상지역의 나지비율이 50%이상으로서 도시개발사업으로 추진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용적률은 사업의 안전성을 고려하면서 유연성 있게 대처하기 위해 주민의견을 청취할 예정이다. 개발방식은 민간이 주도하는 환지방식을 원칙으로 하되 사정이 어려워질 경우 공영개발방식으로 전환하여 추진키로 했다.

문의 _ 시 개발계획과 440-3415

장애인 협동농장 ‘해맑음 땀방울 농장’ 운영

장애인 협동농장이 인천에 생긴다. 우리시는 지체장애인들이 직접 농사를 지어 경제적으로 자립하고 자신감도 갖도록 하기 위해 협동농장을 설립키로 했다. ‘해맑음 땀방울 농장’이라는 이름을 갖게 될 협동농장은 인천

시내 근교에 300~500여평의 땅을 마련한 뒤 100평 크기의 비닐하우스 3~5개 동을 지어 운영된다. 장애인단체나 사회복지법인 등에 맡겨 운영할 이곳에서는 20여명 안팎의 장애인들이 재활교사의 지도를 받으며 열무, 상추, 방울토마토 등의 채소를 재배해서 팔고 수익금을 나눠 갖게 된다.

문의 _ 시 사회복지과 440-2664

남아시아 재난 봉사활동 참가자 귀국



막대한 재산 및 인명피해를 낳은 남아시아 지진·해일 실종자 수색과 구호 봉사활동 참가자들이 귀국, 훈훈한 모범이 되고 있다. (사)한국구조연합회 소속 황민석 인천지역대장(39)을 비롯한 황석경(36), 윤민호(32)팀장은 지난해 12월 31일 출국하여 1월 1일부터 태국 푸켓에서 한국인 실종자 수색, 방역작업 등을 펼치다가 지난 1월 9일 귀국했다.

문의 _ 시 건설방재과 440-3750

급식용 도시락 ‘업그레이드’



우리시는 급식용 도시락 배달에 대한 철저한 관리와 함께 급식비 증액을 정부에 요청키로 했다. 현재 인천지역 10개 군·구를 통해 겨울철 급식을 지원받는 어린이는 1만880명이며 이중 2천400여명이 도시락으로 급식을 지원받고 나머지 8천480은 일반음식점이나 지역아동센터, 공부방, 중

교·민간단체 등을 통해 급식을 제공받고 있다. 시는 철저한 도시락 관리를 위해 노동부 고용안정센터에 도시락 배달인력을 요청하고 겨울방학뿐만 아니라 여름방학에도 급식지원을 할 수 있도록 정부에 예산지원을 요청할 방침이다. 특히 1인당 2천500원의 급식비로는 도시락의 질을 높이는데 한계가 있다고 보고 1인당 급식비 증액도 건의키로 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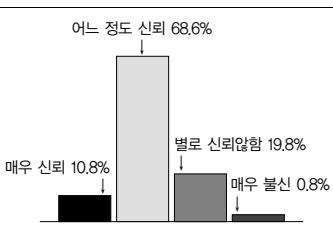
문의 _ 시 사회복지과 440-2923

행정서비스 우수사례집 발간

우리시는 행정서비스현장제 운영 우수사례집을 발간해 시 산하 각 기관 및 유관기관, 각 시·도 등에 배포하였다. 이번에 제작한 사례집은 기존의 업무 나열식에서 탈피하여 소속 공무원 및 고객들이 행정서비스현장의 실천과 이용과정에서 몸소 느낀 바를 수필형식으로 작성한 총 18편의 글이 수록되었다.

문의 _ 시 자치행정과 440-2424

시민 약 80% 수도물 ‘신뢰’



상수도사업본부에서는 우리시 수도물에 대한 객관적인 평가와 상수도 서비스에 대한 고객 만족도 측정을 위한 시민의식 조사를 지난 2004년 11월 5일부터 12월 4일까지 30일 동안 총 960명을 대상으로 실시하고 그 조사결과를 발표했다. 조사결과 우리시 수도물에 대하여 79.4%(매우 신뢰 10.8%, 어느 정도 신뢰 68.6%)는 신뢰하고 있으며, 20.6%(별로 신뢰안함 19.8%, 매우 불신 0.8%)는 신뢰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시민들이 마시는 물에 대한 응답은 수도물을 끓여서 마신다 48.6%, 정수기 물을 마신다 35.7%, 먹는 샘물을 마신다 7.7% 순으로 나타났으며, 수도물을 그대로 마시는 경우는 2.1%로 조사됐다.

문의 _ 시 상수도사업본부 870-9225

2005년 인천투자의 해, ‘Buy Incheon’



송도신도시 신감각 주거단지 송도테크노빌 조감도

우리시는 올해를 ‘인천 투자의 해’로 정하고 지역균형발전 전략에 따라 12조1천182억원을 투입해 각 분야별로 총 95개의 주요 투자사업을 발주할 방침이다. 지역경제활성화에도 일대 혁신이 될 이번 전략은 향후 10년간 100조원 이상의 투자가 이뤄지는 대형사업이 인천에서 펼쳐지는 상황에서 ‘Buy Incheon’을 통해 일자리 창출은 물론 민생경제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는다는 계획이다. 이에 따르면 우리시에서 진행되는 10억원 이상의 사업에 국내·외 자본을 적극 유치하고 이를 뒷받침하기 위해 사업목록을 작성하고 별도 관리카드를 만드는 등 집중관리하며 필요한 정보제공과 홍보를 통한 참여기업 유도와 함께 행정적인 사업 지원방안을 구체적으로 모색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실제로 올해 전체 12조원 규모의 사업 중 가장 큰 부분을 차지하는 건축분야에 7조8천663억원이 투입된다. 건축분야 중 민간개발로 추진되는 사업은 서북부 개발사업(5조1천억원), 용현·학익구역 도시개발사업(1조1천443억원), 그린벨트 내 시민휴식공간화사업(3천620억원), 화수구역 도시개발사업(3천114억원), 장애인재활전문병원건립(100억원) 등 8개 사업에 7조4천309억원이 투입된다. 공공발주 사업은 송도집단에너지사업(3천145억원), 강화민속장 명소화사업(312억원), 향촌지구 주거환경개선사업(350억원) 등 15개 사업에 4천354억원이 쓰일 예정이다. 1조1천457억원이 투입되는 기반공사로는 송도신도시 5·7공구 공유수면 매립공사(3천836억원), 송도신도시 6·8공구 공유수면 매립공사(3천634억원), 송도1공구 기반시설 공사(2천463억원), 송도1공구 어민보상용지 기반시설 건설공사(287억원)등 총 12개 사업이다. 이처럼 ‘Buy Incheon’은 상품성있는 인천을 효과적으로 ‘판매’하겠다는 강력한 의지의 표현이다.

바닷가 주변 쓰레기 차단 그물 설치

한강에서 떠내려 온 쓰레기를 수거하기 위해 강화도 주변 바닷가에 쓰레기 차단 그물이 설치된다. 우리시는 한강변 쓰레기가 인천 앞바다로 흘러드는 것을 막기 위해 강화도와 김포사이 염하와 석모도 수로 등 2곳에 부유 쓰레기 차단 그물을 5월까지 설치할 예정이다. 장마철인 6~9월 강물에 휩쓸려 서해로 떠내려가는 쓰레기를 수거하기 위해 깊이 1.2m, 길이 500m 규모의 그물이 한시적으로 설치된다.

문의 _ 시 수질보전과 440-3643

개항 초기 서구식 건축물 복원



존스턴 별장 (1905)

우리시는 관광객들에게 볼거리를 제공하기 위해 개항기 건축된 근대 건축물들을 2006년까지 복원한 뒤 테마박물관으로 활용하기로 했다. 복원되는 건축물은 1883년 건립됐다 1932년 철거된 일본 영사관이 기념품 판매점과 스낵코너 등을 갖춘 일본 박물관으로, 1884년 건립 후 1950년 철거된 청국·영국 영사관은 각각 중국·영국 박물관으로 복원된다. 또 러시아 영사관(1903년)과 세창양행 사택(1884년)은 역시 기념

품 판매점 등을 갖춘 러시아 박물관과 독일 박물관으로 재탄생한다. 1906년 인천으로 이전된 인천세관은 당시 세관으로 재현되고 인천관측소(1904년)는 기상과 관련된 각종 자료를 갖춘 기상 박물관으로 탈바꿈한다. 이밖에 극장인 표관(1909년)은 인천영상 박물관으로, 존스톤별장(1905년)은 근대 개항박물관으로 복원된다.

문의 _ 시 관광진흥과 440-3324

올해 국고보조 5천600억원 규모

올해 국고보조 사업비가 5천600억원 규모에 이를 전망이다. 이는 2004년에 비해 35.4%(약 1,500억원)늘어난 액수다. 우리시에서는 국가재정과 지방재정을 공동으로 부담해서 추진할 사업의 발굴을 위해 다른 시·도가 이미 국고보조를 받아 추진하는 사업중 시가 도입 가능한 5개사업을 찾아내 인천항 남항주변도로개설 50억원 등 총105억원을 신규로 국고보조를 받아 사업을 추진하게 되는 성과를 거둔 바 있다.

문의 _ 시 예산담당관실 440-2244

인천 종이지적도 ‘역사 속으로’

그림과 문자로 약 100여년간 행정구역의 변천사항과 토지에 대한 내용을 담고 있는 우리시 전지역의 종지로 된 지적(임야)도가 역사속으로 사라졌다. 이 지적도는 대한

민국 최초 지적(임야)도면으로 그동안 전산화 작업에 따라 2004년 말로 사용종료되고 올해부터 필지중심토지정보시스템이 가동된다.

문의 _ 시 지적과 440-3472

무료 노인 요양시설 운영 계획



인천시내 3곳에 무료 노인 요양시설과 2곳의 실비 요양시설이 올해 문을 연다.

우리시는 올해말까지 남구, 부평구, 계양구 등 3곳에 무료 노인 전문요양원을 만들 예정이다. 이들 요양원은 사회복지재단 등에서 땅을 내놓고 건물 건축비는 시가 지원해 재단이 운영을 맡는 방식이다. 시는 이와 함께 기초생활수급자보다는 조금 형편이 나은 노

인들이 실비로 이용할 수 있는 전문요양시설 2곳을 지어 역시 오는 11~12월에 문을 열기로 했다.

문의 _ 시 사회복지과 440-2670

자치경찰제 등 지방분권계획 적극 추진

우리시는 2005년을 맞아 정부가 핵심 국정과제로 추진해온 지방분권 정책에 따라 자체적으로 지방분권추진계획을 수립하여 추진할 계획이다. 이에 따라 주민 생활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자치경찰제의 도입, 교육 자치제도의 개선, 특별지방행정기관의 지방이양 등 지방행정의 근간을 이루는 중요사항들에서 많은 변화가 예측된다. 먼저 1월중에는 분권과제별로 전담부서를 지정 운영하는 한편, 해당분야별 전문가로 지방분권자문위원회를 구성하는 등 지방의 의견이 최대한 반영 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문의 _ 시 혁신분권담당관실 440-3602

의 정 소 식

인천광역시의회 의원, 2004 불우이웃돕기 깜짝 연극무대 출연



인천광역시의회 박승숙 의장은 12월 마지막 날 인천종합문화예술회관에서 열린 2004불우이웃돕기 한마음 송년축제인 ‘사랑의 한마음잔치’에서 안상수 시장, 나근형 교육감과 함께 거지로 출연해 깜짝 놀랄만한 연기를 선보이며 관객들에게 큰 호응을 받았다.

인천을 대표하는 의장, 시장, 교육감이 한꺼번에 무대에 올라 연극을 선보인 것은 이번이 처음으로 세 명의 인사들은 거지 선발대회에 참가해 각설이 타령을 부르기도 하고 ‘거지란 무엇인가’를 물어보는 대사에서는 공직자에 대한 자신의 의견을 제시하기도 했다. 또한 신영은, 김필우, 노경수, 최병덕, 고진섭, 황인성, 이주삼, 김성숙 의원 등도 패션쇼 ‘빨간팬티’를 무대에 올려 뜻을 같이했다. 한편 이날 모은 성금은 불우이웃을 돕기 위해 사회복지공동모금회에 전달됐다.

인천광역시의회 ‘2005년 신년인사회’ 열려



인천광역시의회는 1월 4일 오전 11시 의회 현관 1층 중앙홀에서 인천광역시의회 박승숙 의장, 안상수 시장, 나근형 인천광역시 교육감, 전·현직 시의원, 의정회 관계자 등 1백5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신년인사회를 가졌다.

신년인사회에서 박승숙 의장은 신년사를 통해 “올해도 우리시의원 모두는 시민여러분의 소중한 뜻을 받들어 지역발전의 봉사자가 될 것을 다짐한다”고 말한 뒤 “시민여러분이 편안하고 풍요로운 생활을 할 수 있도록 생산적인 현장위주의 의정활동을 펼치는데 의정역량을 결집시키겠다”고 말했다. 한편 이날 오전 8시엔 박승숙 의장, 시의원, 의회사무처 간부 등은 수봉공원 내 현충탑을 참배했다.

효명건설 여자 핸드볼팀 우승 감격



우리시 연고의 효명건설 여자 핸드볼팀이 2004~2005 잭필드배 핸드볼큰잔치에서 첫 우승의 감격을 안았다. 창단 5개월의 신생팀인 효명건설은 지난달 15일 의정부실내체육관에서 벌어진 대회 여자부 결승 2차전에서 부산시시설관리공단을 27대22로 제압하고 3전2선승제에서 2연승으로 우승컵을 차지했다. 효명건설 여자 핸드볼팀은 이번 대회에 처음으로 참가해 1차 대회 우승에 이어 전통의 강호 대구시청과 부산시시설관리공단을 연파하고 핸드볼 큰잔

치 정상에 오르는 기염을 토했다. 이날 결정적으로 승리를 안겨준 이상은은 최우수선수상(MVP)을, 임영철 감독은 지도상을 각각 받았다. 효명건설 여자 핸드볼팀은 임영철 여자대표팀 감독을 비롯해 오영란, 이상은, 명복희 등 국가대표 4인방을 주축으로 지난해 9월 창단됐다.

중구 한중문화관 개관 임박



중구가 관광특구 활성화를 위해 신축중인 차이나타운 '한중문화관'이 오는 3월 중 개관된다. 착공당시에는 '문화관광정보센터'로 시작했으나 지난 11월 '한중문화관'으로 명칭을 바꾸고 현재 2년여의 공사기간을 거쳐 마무리 공사가 한창이다. 앞으로 한중문화관이 차이나타운의 활성화는 물론 중국과의 문화관광교류를 통한 교두보로서의 역할을 크게 해낼 것으로 예상된다.

문의 _ 중구청 760-7114

남구 사랑의 PC 나누기 사업 성과

남구는 2001년도부터 컴퓨터를 무상으로 보급하는 사랑의 PC 나누기 사업을 추진해 주민들에게 호응을 얻고 있다. 이 사업에 활용되는 컴퓨터는 공공기관, 민간기업, 개인으로부터 사용하지 않는 중고 PC를 수집해 업그레이드 및 수선 정비한 후, 소년소녀가장, 기초생활수급자 및 사회복지시설 등에 보급해 주고 보급한 PC가 장애가 발생할 경우 무상으로 서비스를 해주는 사업이다. 2005년에는 60대의 PC 보급을 목표로 추진하고 있다. 아울러 이용자의 불편이 없도록 최대한 높은 사양의 PC를 보급하며 정보화 교육을 지속적으로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문의 _ 남구청 887-1011

남동구 해외규격인증 획득기업 현판 수여



남동구는 지난해 말 구청 회의실에서 해외규격인증 획득기업에 대한 현판 수여식을 개최했다. 구는 지난 2월 총사업비 7천여만원을 들여 관내 중소기업의 품질경영체제를 확립하고 수출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 ISO, CE, UL, QS 등 해외규격인증을 획득할 수 있도록 업체당 350만원을 지원했다. 남동구청으로부터 해외규격인증 획득기업으로 현판을 받은 기업은 조일전기공업(주) 등 17개 업체이다.

문의 _ 남동구청 466-3811

우리시 인구 지난해 말 현재 261만 명

우리시의 인구가 2004년 12월 31일 현재 260만명을 넘어섰다. 주민등록 인구통계 집계결과 총인구는 2,610,715명으로 나타났으며, 세대수는 908,673세대이다. 2003년 대비 인구는 9,437명(0.36%)명 증가하였고 세대수는 17,067세대(1.91%)가 증가한 수치다. 인구를 남녀 성별로 보면 남자가 1,322,272명(50.65%), 여자는 1,288,443명(49.35%)으로 전년에 비해 남자 3,712명(0.28%)증가, 여자 5,725명(0.45%)이 증가했다. 2004년말 현재 연령계급(10세)별 인구분포를 보면, 50세 연령층이 전년에 비하여 가장 많이 증가(14,031명)한 반면, 10세 미만 연령층은 가장 많이 감소(16,728명)한 것으로 나타났다.

연수구 찾아 나서는 급식지원사업

연수구가 그동안 결식이 우려되는 아동에게 지원하던 급식지원사업을 이번 겨울방학부터는 급식지원이 필요한 아동을 찾아서 지원하는 적극적인 급식지원사업으로 전환했다. 구는 이를 위해 아동이 거주하는 인근지역의 식당을 해당 동사무소에서 지정, 식권으로 식사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했으며 집에서 식사를 할 수 있도록 도시락도 배달한다. 특히 직접 식사제공이 곤란한 경우에는 양곡을 공급, 아동이 이용할 수 있도록 조치했다. 한편 급식이 필요한 아동이 있을 경우 동사무소를 통해 아동의 실태조사와 급식전달방법을 파악한 후, 지원한다는 방침이다.

문의 _ 연수구청 817-1011

부평구 부평문화원 전국 최우수 문화원 선정



부평문화원(원장 허문명)이 전국문화원 연합회 주관으로 실시한 2004 지방문화원 관리운영 평가에서 최우수상을 수상했다. 이번 평가에서 부평문화원은 관리운영 전반에 대한 종합적 평가와 지역 특성화 프로그램 및 지역 분권, 문화적 기본권 신장을 위한 노력 등 모든 항목에서 고르게 높은 점수를 확보하여 최우수상을 수상하게 되었다.

문의 _ 부평구청 527-5911

계양구 노인일자리 마련사업 우수기관 선정



보건복지부에서 노인복지정책의 핵심과제인 노인일자리 마련사업에 대한 2004년도 종합평가를 실시한 결과 176개 시·군·구 중 계양구가 우수자치단체로 최종평가됐다. 계양구는 지난 한해 동안 우리동네 환경지킴이 사업, 주거환경특별사업, 경로당 방학교실 운영, 노인인력기관 선정운영 등 노인일자리 마련사업에 연인원 총 1천40명을 투입, 노인일자리 창출을 위해 노력했다.

문의 _ 계양구청 551-5701

GM대우 자동차 성능시험장 관련 MOU 체결

우리시와 GM대우가 청라경제자유구역 안에 자동차 성능시험장과 연구시설 등을 짓는 사업과 관련한 양해각서(MOU)를 체결했다. GM대우는 이 곳에 자동차 성능시험장 건설에 약 240억원, R&D시설 건립에 약 490억원 등 총 730억원 정도를 투자한다는 계획이다. 이러한 프로젝트는 GM대우가 자동차 성능시험장과 R&D시설 건립의향을 관계기관에 밝히면서 추진되었다.

최종계약은 올 상반기에 이뤄질 예정으로 시는 서구 원창동 청라 경제자유구역 내 부지 14만여평을 매입해 GM대우에 제공하게 된다. 임대기간은 최초 30년이며 추가로 20년을 연장할 수 있다. 이로써 인천이 세계 최대 자동차 메이커인 GM의 전세계 연구·개발의 전략기지로 부상할 수 있는 중요한 발판이 마련된 셈이다.



경제특구 내 외국병원 내국인 진료 허용

경제특구 안에 설립될 외국병원에 대해 내국인 진료가 허용된다. 내국인 진료 허용 여부에 대해 국회 재정경제위는 지난해 말 경제자유구역법 개정안을 통과시켜 앞으로 경제특구 내에 세워질 외국병원에서는 환자가 돈을 더 내면 원하는 고급진료를 받을 수 있게 했다. 따라서 외국에 까지 나가 치료를 받는 과정에서의 비용이 줄고 국내병원과 외국병원과의 경쟁으로 의료 수준이 크게 발전하는 효과도 기대된다. 한편 정부는 외국병원의 내국인 진료를 허용한 경제자유구역법이 오는 4월 시행되는 것에 맞춰 2008년께 인천경제자유구역에 500평 이상의 1~2개 외국 대형병원을 유치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

영종도에 최첨단 생명공학(BT) 산업단지 조성 검토

지난 12월 27일 우리시를 방문한 이해찬 국무총리는 영종경제자유구역에 최첨단 과학연구시설 등을 갖춘 대규모 BT산업 단지를 조성하는 방안이 구체적으로 검토되고 있다고 밝혔다. 이 총리는 이날 오전 인천을 방문, 경제자유구역청에서 열린 간담회에서 영종 경제자유구역에 생명공학중에서도 최고의 부가가치를 창출할 수 있는 의·생명 분야 단지 조성을 추진하고 있으며 총리산하에 단지 조성을 위한 기획단 구성이 추진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또 송도는 IT, 영종은 BT 산업을 집적화한 첨단 산업 도시로 집중 육성 발전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인천경제자유구역청 자율성 강화

인천경제자유구역청이 자유구역내 외자유치 및 개발사업 관련 업무를 전담 처리하고 청장에게 조직·인사·운영에 관한 규정 제정권이 부여되는 등 경제자유구역청의 독립성과 자율성이 크게 강화된다.

재정경제부와 인천경제자유구역청에 따르면 송도, 청라, 영종 경제자유구역의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개발을 위해 경제자유구역청에서 이들 지역내 외자유치와 개발사업 관련 업무를 전담 처리하게 된다. 특히 업무 효율성과 전문성을 높이기 위해 계약직 공무원 채용시 지금의 학력 위주의 채용 기준을 적용하지 않고 국제 비즈니스 경험 등 외자유치와 관리에 적합한 전문인력을 채용, 활용해 나가기로 했다. 이밖에 경제자유구역내 외국인 등 투자유치 활성화를 꾀하기 위해 이들 지역내 건축물에 대한 용적률과 건폐율 등 관련 규제 완화가 추진된다. 경제청의 독자적이고 전문적인 업무 추진 여건 조성과 함께 경제자유구역내 각종 규제 완화가 이뤄진다면 외자유치는 물론 그 동안 체결된 각종 개발 투자 약속이 실질사업으로 바로 이뤄질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문의 _ 인천경제자유구역청 453-7114

사이버 공간 ‘킬러’가 났다



“부모님들의 반응이 ‘겁나게’ 좋다”고 전하는 우리시 e-클린센터 이주열 소장은 전국 최초라는 자부심보다는 ‘왜 이제서 하나’는 따끔한 질책에 몸둘 바를 모르 지경이다. 그만큼 각종 유해 사이트와 커뮤니티로 인한 사회적 폐해가 심각하다는 반증일터. 우리시는 인천청소년문화사업단에 사업을 위탁, 지난해 말부터 ‘인천광역시 e-클린센터’를 본격 운영하고 있다. 센터는 우선 청소년들이 불법유해정보를 가정에서 접하는 경우가 90%를 넘어선다는 점을 감안해 청소년 자녀가 있는 16만 가정에 대해 유해사이트 차단프로그램을 무료로 보급하는 등 깨끗한 사이버문화 확산에 나설 계획이다.

구월동 건설회관 5층에 자리잡고 있는 e-클린센터는 학생과 학부모 등 모두 12명의 자원봉사자가 사이버 공간을 날카로운 눈으로 감시하고 있으며 수시로 걸려오는 상담전화에 응하기도 한다. 쫓고 쫓기는 싸움을 벌이는 이들의 목표물은 폭력 및 자살관련 사이트, 포르노사이트 등 유해 정보와 커뮤니티, 사이트들이다. 아울러 e-클린센터는 사이버범죄수사대를 비롯해 정보통신윤리위원회와 공조해 유해정보 제공자나 사이트 운영자에 대한 처벌, 사이트 폐쇄 등의 강력한 조치도 취해 나갈 예정이다. 향후 포털업자에게도 감시와 관리 책임에 비춰 유해정보 제공에 경종을 울릴 계획이다. 특히 부모들의 역할이 무엇보다 중요함에 따라 차단프로그램을 직접 설치하는 일부터 자녀들의 생활교육과 지도를 위한 교육에 이르기까지 적극적인 ‘정화’에 나설 예정이다.

“길 조심해라, 나쁜 친구들하고 놀지마라”는 옛말이 이제는 ‘컴퓨터 조심해라’는 말로 바뀌어야 할 현실’이라고 말하는 이주열 소장은 “컴퓨터나 인터넷은 그 특성상 중독성이 강해 한번 맛을 들이면 점점 깊이 빠져들고 더 강한 자극을 찾아 헤매는 효과가 있는 만큼 초기 예방과 이용 교육이 절대적으로 중요하다”고 강조한다. 이를 위해 학교, 동사무소, 구청, 반상회, 노인정 등 어른이 있는 곳이면 어디든 달려가 프로그램과 자료를 배포하



문의 _ e-Clean Center 1544-1099 / www.e-cleanincheon.com

고 필요한 교육을 실시할 계획이다. 각종 학원이나 유치원도 염두에 두고 있다. 장소와 세대를 넘는 실제적인 IT교육이 필요한 까닭이다. 앞으로 우리 부모들도 컴퓨터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내 아이는 문제 없겠지’라는 막연한 믿음을 버리고 정작 자녀들의 사용 실태를 바로 보는 노력이 필요하겠다.

핫라인 참여를 희망하는 유관기관 및 단체, 자원봉사자는 인천광역시 이클린 유해정보신고센터(1544-1099)에 신청 접수하면 된다.

글 - 지영일(편집위원 · openme@incheon.go.kr) / 사진 - 김정식(자유사진가 · jsjsm@incheon.go.kr)

인천은 국제도시이다. 국제공항과 항구 그리고 경제자유구역지정으로 하루가 다르게 외국인들의 발걸음이 찾아지고 있다. ‘음식’은 지역의 문화이자 역사이다. 우리시는 외국인들이 이용하기 편리한 맛 좋고 친절하며 깨끗한 음식점 90군데를 선정했다. 메뉴별로 매달 4군데씩 시리즈로 소개한다. (자료제공 _ 시 보건위생과, 아이디어)

한식 경복궁(송도점) | 연수구 옥련동 572 | TEL : 831-7776

스페셜메뉴 : 소갈비
영 업 시 간 : 오전 10시~오후 10시
찾 아 가 기 : 일반버스 6번
송도호텔 하차

양식 람세스 | 강화군 양도면 인산리 153-2 | TEL : 937-8788

스페셜메뉴 : 파스타, 정식
영 업 시 간 : 오전 11시~오후 12시
찾 아 가 기 : 강화시내에서 안양대강화 캠퍼스를 지나 인산저수지 옆에 위치

중식 취흥 | 남동구 구월1동 1129-5 | TEL : 422-3330

스페셜메뉴 : 중국요리
영 업 시 간 : 오전 12시~오후 10시
찾 아 가 기 : 인천지하철 이용
문화예술회관역 하차

양식 대양일식수산 | 부평구 부평4동 374-7 | TEL : 508-0782

스페셜메뉴 : 회정식
영 업 시 간 : 24시간
찾 아 가 기 : 인천지하철 이용
부평시장역 하차

조선 25대 왕 철종이 된 ‘강화도령’

이들의 상기된 뺨과 반짝이는 눈에서는 기대감이 묻어났다. 안혜연(만월초 6), 혜경(같은 학교 3)이 는 탐방 전날 용흥궁과 철종에 대한 자료를 인터넷으로 공부하고 질문지를 나름대로 준비했다. 글 쓰기를 좋아하는 엄마 문미경(36)씨는 “방학이라 구들장을 지는 아이들에게 좋은 글감 찾기를 해주 려고요”라며 운을 떼었다. 세 모녀는 반복되는 일상의 진공포장을 벗겼다.

1



2



3



4

1 철종이 왕위에 오르기전 살 았던 집임을 표시하는 ‘철종 잠저구기비’ 2 철종이 어린시 절에 뛰놀았을 용흥궁 골목 3 용흥궁 대문 4 임금님도 이 물을 마셨을까? 용흥궁 안에 있는 우물.

임금님 살던 집 둘러보자

강화읍에서 고려궁지로 조금 오르다 보면 오른쪽에 ‘용흥궁’이라 쓰여진 작은 표식을 발견할 수 있다. 좁은 골목으로 더 들어가면 막다른 곳에 한옥이 보인다. 여느 가정집과 다른없는 대문 앞에서 긴가 민가 살피는데 ‘경경-’. 앞집 개 짖는 소리, 역사를 베어 문 듯 아프게도 짚어냈다.

일행은 주택가 골목에서 마주친 이남숙(38. 문화유산해설사)씨를 동네 아주머니인 줄 알고 한동안 아는 채 앉고 서 있었다. 이곳에선 진짜가 다 가짜 같아 보였다. 해설사는 신 분증을 보이며 다가와 친절한 웃음을 건네 초면의 서먹함을 없애주었다. “지금 이곳은 작년 7월부터 문화재 보수공사기간인데 동절기라 3월까지 중단상태예요. 벽체는 다 헐 어지고 양상한 기둥들이 지붕을 받쳐 든 채 을씨년스럽기도 하죠. 아쉽지만 오늘은 눈보 다도 귀를 크게 열어두시면 좋을 듯싶네요.”

이곳 저곳 공사중인 용흥궁을 둘러보았다. 용흥궁은 조선 25대 철종(1849~1863)이 왕 으로 등극하기 전 약 5년간 살던 곳으로 원래 3칸짜리 초가의 볼품없던 집이었다. 임금 이 된지 4년 되던 해(1853년) 강화유수 정기세가 주변의 집들을 사들여 기와집으로 확대 개축하였다. 조선시대의 살림집 유형을 잘 갖추고 있는 집이긴 하지만 잠저라기에는 초 라한 양반네 집 정도 크기 밖에는 안 되어 보인다. 몇 차례에 걸쳐 규모를 확장했다고 하 나 웅장함이나 화려함은 찾을 수 없다.

현재 남아있는 건물은 내전 1동, 외전 1동, 별전 1동과 오른쪽으로 계단을 올라가면 강 화도령 원범(왕위에 오르기 전 이름)이 머물던 옛 집터임을 표시하는 ‘철종잠저구기비’ 가 들어있는 비각 1동 등이 있다. 11시 양지바른 때, 비각 아래로 일행의 그림자가 엮드렸 다. 용흥궁을 둘러보노라면 권세의 위용을 어디에서도 찾을 수 없다.

자신의 뜻과는 전혀 무관했던 왕으로의 등극. 세도정치의 큰 세력 앞에 배운 것 없던 강화도령은 얼마나 힘이 들었을까? 언니 혜연이는 “만약 철종이 왕에 등극하지 않고 일 반 백성으로 강화도에 살았다면 어땠을까? 가난했지만 농사짓고 나무하고 맘은 편했을 거예요. 부모형제와 자식, 사랑하는 사람을 다 잃으면서까지 왕이 되어야 한다면 전 왕 의 자리를 버릴래요.”

“안타까워서 하는 소린 줄은 알지만 왕이 되고 안 되고는 자신의 의지와 무관했어.” 엄 마는 어린시절의 원범에게 모성이 쏟렸다. 내 뜻대로 살지 못하고 권력의 회오리에 휘돌 린 불운한 왕의 삶에 동정이 갔다.

“여담이지만 원범에게는 양순이라는 정인이 있었다면서요?” 팽개쳐 둘 뻔 했던 여인의 이름이다. 원범의 사랑! “임금이 되고나서도 강화를 못 잊고 술을 드실 때면 더욱 강화가 그립다고 하셨대요. 양순이 역시 강화도령을 못 잊고 함께 거닐던 길을 해매고 다녔다는 데, 이런 일이 철종임금의 귀에 들어 갈까봐 일가에서 사졸들을 보내 양순을 없앴다는 얘기 전해지더군요.”

구중궁궐에 머문들 마음이 지옥이라면 강화의 무지렁이로 사는 편이 더 행복했을 것 을... 마음이 내남없이 숙연해진다. 일행은 선원면 냉정리에 있는 철종의 외가로 발길을 돌렸다.

임금님 외가댁에 놀러가자

길 입구에서부터 약간 질퍽이는 황토흙을 밟으며 철종의 외가로 들어섰다. 비좁은 골목길 원범의 집과는 달리 확 트인 농지가 시원하게 펼쳐졌다. 대문을 밀치니 ‘꽤에엑’ 하고 오래된 쇠소리가 울었다. 걱정했던 대로 이곳 역시 보수공사 중. 정원 옆으로 자재들이 파란 천막을 덮고 봄을 기다린다. 마당에 용처럼 깔린 이끼를 문지르다가 해설사는 역사속으로 미끄러졌다. “1853년(철종4) 강화유수 정기세에게 명하여 건립한 것인데 그 후 철종의 외적인 염보길이 살았지요. 이 건물은 원래 안채와 사랑채를 좌우에 두는 H자형 목조건물로 45칸이었다고 전할 뿐. 지금은 행랑채 일부가 헐려 ㄷ자 모양의 몸체만 남아 있습니다.”

막돌로 쌓은 화장담이 간단하고 소박하게 둘러져 있다. 당시 일반 사대부의 웅장한 집 규모와는 달리 기교 없고 서툴러 보이기도 하지만, 그 예스러움과 고아한 멋은 충분히 살아있다.

“화장담!” 이름이 예쁘다며 엄마는 “돌담에도 이름이 있다니 집에 가서 사전 좀 찾아 봐야겠어요.” 한다.

땃돌위에 신발을 벗어두고 모녀들은 마루에 올라섰다. 수분을 다 뺀 건관절같은 널은 밟을 때마다 삐걱거려 체중을 부둥켜안고 살금살금 앉아야 했다. “외투 벗고 몸무게를 줄일 걸” 이들은 주인 없는 집에 올라선 것을 미안해 한다. 그래도 엄마는 원두막처럼 바람 잘 통하는 누마루에서 사랑방 손님과 책을 읽거나 시를 읊으며 낮잠을 즐기고 싶어 하는데. 체감온도 영하 9도, 겨울바람은 상념을 오래 노출시키길 꺼려했다.

글 _ 조은숙 (부평사람들 기자 · eyagi9090@yahoo.co.kr) / 사진 _ 김성환 (자유사진가 · koin1@incheon.go.kr)

※이 코너는 엄마와 아이가 함께 참여할 수 있습니다. 참여를 원하는 분은 둘러보고 싶은 우리 지역의 문화재를 정해서 전화(440-2072) 또는 이메일(happyjka@incheon.go.kr)로 신청하세요. 참가하는 분께는 문화상품권(1만원권) 2매를 드립니다.

비운의 왕, 철종

‘강화도령’ 철종은 서울에서 태어나 당파싸움에 쫓겨 아버지와 함께 강화로 유배되었고 피신하여 숨어살았다. 아버지 전계군과 어머니를 천주교 탄압으로 잃은 후 나무꾼으로 홀로 19세까지 살았다. 당시 영조의 혈손으로는 현종과 이원범 두 사람뿐이었는데 현종이 후사 없이 승하하자 전계군의 막내아들 원범을 왕으로 정한 것이다.

150여 년 전 철종이 왕으로 지목되어 영의정 정원용을 비롯한 원로대신들이 그를 모시러 왔을 때, 강화도에는 상서로운 두루미 떼가 날아들었다고 한다. 원범은 그들이 오자 잡으러 온 줄 알고 산 속으로 달아나 3일간을 숨었다. 불들려 내려 왔을 때 살려 달라고 애걸까지 하였다고 전한다. 14년간 재위하는 동안 8명의 비빈에게서 11명의 자녀를 두었으나 하나같이 단명했고, 유일하게 살아남은 영혜옹주도 출가한 지 3개월 만에 죽는 등 불행이 끊이지 않았다. 서민으로 지내던 어린 시절을 생각해 백성들을 위한 정치에 힘을 썼지만, 당시 주위의 간신들의 방해와 자신의 병으로 인해 정치를 다하지 못하고 33세 젊은 나이로 세상을 마감했다. 철종의 대를 이을 후사가 없어 다시 고종이 등극하게 된다.

강화역사관 전시실에는 철종 임금을 모시러 가는 ‘강화행렬도’가 있다. 2000년부터 강화군 지역 축제 행사의 하나로 철종의 등극 행렬을 재현하고 있다.



1 철종 외가댁 누각에 선 세 모녀 2 '역사의 문'을 열어보자 3 철종 외가댁 전경.



철종임금 등극 행렬

사요나라 치카, 다시 만나자~



나는 지난 12월 인천의 자매도시인 일본의 키타큐슈시에서 온 청소년들과 인상 깊은 만남을 가질 기회가 있었다. 첫날 일본 청소년들을 환영하는 환영만찬회에서 처음으로 우리 집에 올 일본 친구를 만나게 되는거라 무척 떨렸다. 일본 청소년들이 도착하고 시작된 환영만찬회. 나는 홈스테이를 하는 학생들을 대표로 환영사를 해야 했다. 단상에 서서 일본어로 환영사를 해야 하는데 떨려서 입이 안떨어졌다. 호텔에서 오는 동안 엄청 연습을 했는데 막상 단상에 서니 제대로 못했다. 내 맘대로 되지 않아서 짜증이 울컥 솟았다.

우리집에서 홈스테이를 할 친구의 이름은 島本 知佳(Shimamoto Chika). 통통하고 나보다 2

살 어린 중학교 1학년. 서투른 한국말로 나에게 질문을 해오는 치카. 치카가 얘기 하는 것에 답하면서 친해지려고 노력했다. 곧이어 우리는 식사시간을 갖게 되었고, 치카와 나는 음식에 대해서 이야기했다.

“What’s your favorite korean food?” 치카는 김치를 좋아하고 다음으로는 불고기를 좋아한다고 했다. 한국에 와서는 돌솥비빔밥, 지짐이(부침개)를 먹고 싶다고 했다. 치카와의 첫 만남은 음식 이야기, 가고 싶은 곳 등을 물으면서 그렇게 끝이 났다.

오늘은 동대문 가는 날~

일찍 일어나서 내가 먼저 준비를 하려고 했는데 치카까지 일찍 일어나 버렸다. 치카는 동대문으로 쇼핑 가는 것에 대해서 너무 기대가 된다고 빨리 갔으면 하는 눈치였다.

우리는 밥을 먹으려고 식당 앞으로 갔다. 많은 음식 중에는 치카가 가장 좋아한다는 불고기도 있었고, 지짐이도 있었다. “우와 ~~~ 엄마가 신경 좀 쓰셨네~ 엄마, 고맙습니다!”

우리는 버스와 지하철을 갈아타고 동대문역에 가서 서영이와 리에를 만났다. 우선 동대문을 구경하고 그곳에서 기념사진을 찍고, 두산타워로 향했다. 1,2,3층까지는 여성복, 신사복 등등이 있었고, 6층부터는 외국인들을 위한 코너였다. 그중에 4층에서는 루이비통 등 짝퉁을 팔고 있었는데 치카는 그곳에 꽤 흥미가 있어 보였다. 치카는 특히 루이비통을 사고 싶어 했다. ‘일본도 짝퉁 열풍인가?’

어제 치카에게 내 한복을 입혀주었는데 너무 좋아했다. 그래서 치카와 리에에게 우리나라 한복을 소개할 겸 5층 한복 코너로 향했다. 치카는 한복에서 눈을 떼지 못했다. 그래서 치카와 리에는 옆에 있는 윤사마 가게를 구경하게 한 뒤, 나는 서영이와 함께 큰맘 먹고 치카를 위한 한복과 복주머니를 샀다. 치카 모르게. 그런데 ‘뭐가 이리 비싼거야!’ 2시간 정도를 쇼핑하다가 9층으로 올라가서 음식을 먹기로 했다. 음식을 시키고, 시간이 남길래 내 선물을 줬다. 치카는 한복을 보고 너무너무 좋아했다. 그리고 고맙다는 말을 무안할 정도로 계속해서 했다. 리에와 서영이 쪽도 마찬가지였다. ‘하하. 한복 사기를 잘한 것 같다.’

오늘은 치카가 일본으로 돌아가는 날이다. 일찍 잠이 들어서인지, 치카가 가는 날이라서 그런지 일찍 일어났다. 치카는 돌아갈 복장으로 갈아입고, 엄마와 인사를 나누었다. 엄마의 서투른 영어숨씨로 “꼭 한 번 더 놀러와요.”라는 말에 치카는 눈물을 보였다. 정이 많이 들었던 모양이다. 이렇게 치카와의 짧은 만남이 끝났다. 치카와의 만남으로 나는 일본에 또 한 명의 친구가 생긴 것이다. 말은 잘 통하지 않았지만, 손짓과 발짓으로도 말은 충분히 통했다. 그래서인지 이젠 어느 나라의 친구도 다 사귄 수 있을 것 같다.

치카의 깜찍한 모습이 자주 생각난다. 만약에 기회가 되면, 치카를 만나러 일본을 가든지, 치카가 한국에 한 번 더 놀러 왔으면 좋겠다. 그때에는 내가 일어공부를 열심히 해서 의사소통에 지장이 없도록 준비해야겠다.

‘치카! 사요나라!’

글 _ 양현정 (불로중학교 3학년 제4기 청소년웹진 MOO 학생기자)



맨 위 사진 왼쪽이 필자, 오른쪽이 치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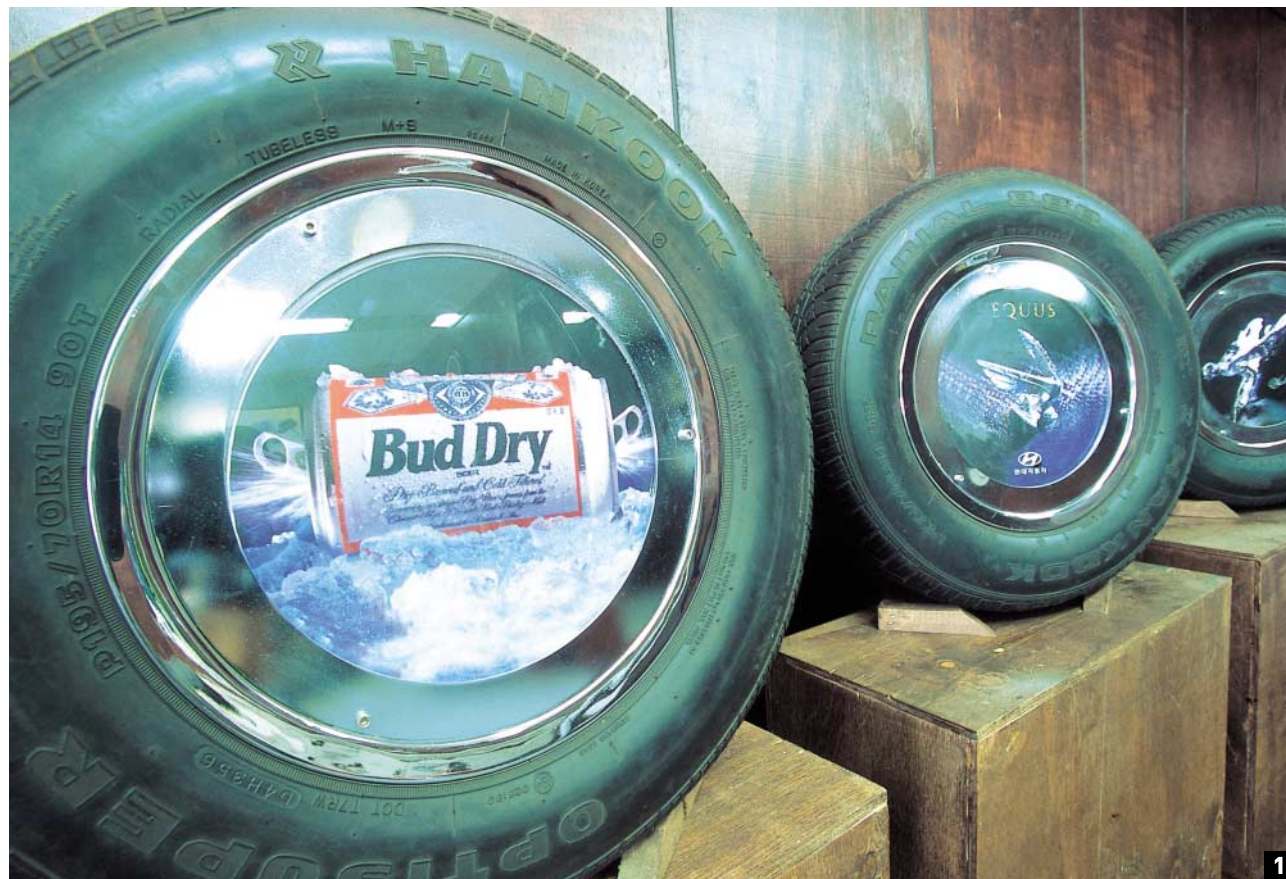
멈춤의 미학 ‘그곳을 바라보라’

자동차 바퀴를 이용한 시각전달 매체 개발

바퀴는 돈다. 아니다 멈추기도 한다. 그렇다면 돌면서도 멈추는 것은 가능한가? 가능하다. 아주 오랜 옛날 무거운 물건을 쉽게 운반하기 위해 만들어진 바퀴는 인류문명 발전의 최대 발명품 가운데 하나다.

‘스페이스 홀’ (대표 류충섭, 남구 도화1동 592-5 대림빌딩 707호)이 바퀴의 역사를 새롭게 써나가고 있다. 이 업체는 자동차가 주행중이더라도 바퀴의 일정부분이 회전하지 않고 공중에 떠 있는 것처럼 정지 상태를 유지함으로써 전달하고자 하는 메시지를 직접 전달하는 새로운 매체로서의 바퀴에 주목했다. ‘이젠 자동차 휠도 패션 시대’라는 기치아래 다양한 모양과 내용의 휠을 내맘대로 장착할 수 있는 신기술을 내놓은 것이다.

지금까지 자동차 휠은 차량에 따라 많은 유형을 선택하기는 하지만 개인 취향에 맞게 다변화를 줄 수는 없었다. 그러나 스페이스 홀이 개발한 ‘스페이스 휠’은 자동차 휠의 기능은 물론 알루미늄 휠의 장점까지 갖고 있으며 주행중에도 회전하지 않고 고정된 이미지를 전달함으로써 수많은 다변성을 연출하는 것이 가능하다. 예를



1

들어 자동차의 디자인이나 칼라에 따라 여러 형태의 디스플레이가 가능하며 개성에 맞게 꾸미는 것이 바로 그것. 아울러 공공 행사나 문화 사업 등 불특정 다수에게 알려야 할 내용이라든가 기업 신제품 홍보, 특정 브랜드나 로고, 엠블램 등 시장마케팅을 위해 폭넓게 활용할 수 있다. 스페이스 휠에 들어가는 내용은 리필이 용이해 이후 언제든 기분과 필요에 따라 원하는 이미지나 부조로 갈아 입힐 수 있다.

시각디자인을 전공한 류충섭 대표는 새로운 분야의 산업 디자인 상품개발에 몰두하던 중 세계적으로 가장 많이 보급되어 있으면서 유동성을 갖춘 자동차를 활용한 시각전달 매체 개발을 착안하게 되었다고 한다. 1997년부터 본격적인 연구를 수행한 결과 주행중에도 이미지가 회전하지 않고 유지되어 원하는 메시지를 전달할 수 있는 컨셉트 휠 및 휠커버를 개발, 지난해 6월 특허등록을 마쳤으며 현재 국제특허도 출원중이다. 미국과 일본의 경우 80년대 초·중반부터 이러한 아이디어에 대한 연구개발에 공을 들여왔으며 일본은 어느정도 개발 완료 상태이지만 안정성에서 스페이스 홀의 그것보다 현저히 떨어진다. 차량이 후진할 때 따라 도는 문제를 극복하지 못했고 기술과 비용면에서도 상용화에 불리하다는 것이다. 멈추는 기술에는 베어링과 중심을 잡아주는 추가 공통적으로 사용되지만 지속적인 안정성 유지가 관건. 스페이스 홀은 자체 개발한 부동오일을 활용, 부력의 원리에 의해 이 문제를 해결했다. 어떤 노면 상태나 극한 기후조건 속에서도 구르는 바퀴와 무관하게 안정된 정지상태를 유지하는 핵심기술을 개발한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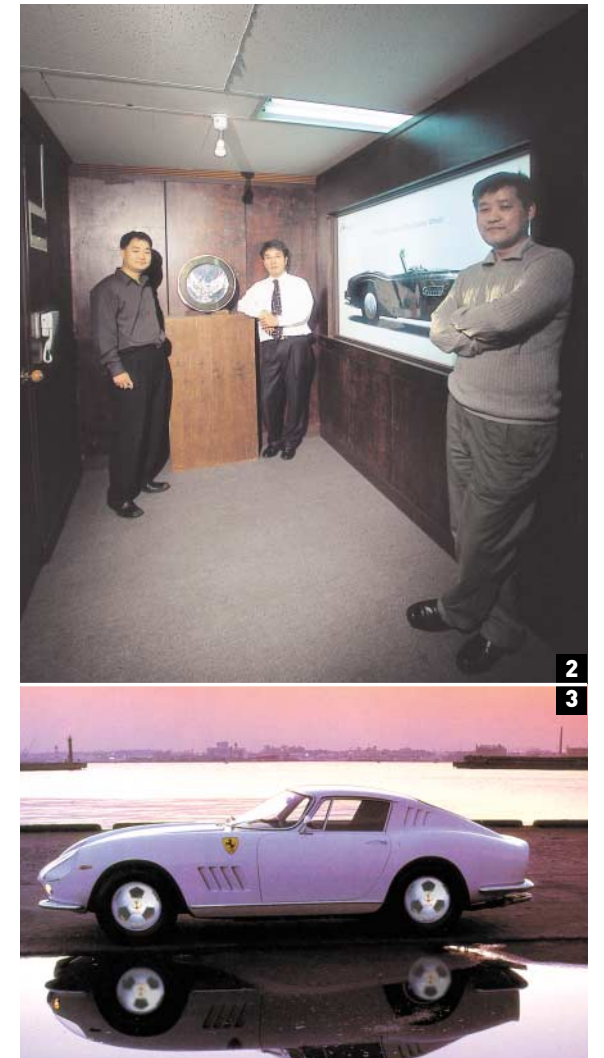
공식적으로 지난 2004년 1월 창업해 시제품을 만들어 내고 특허를 획득하기까지 30대 후반의 류충섭 대표 이하 3인은 그렇게 정신없이 달려왔다. 그러나 끝이 아니다. 향후 기술력 향상에 따라 동영상이나 여러 내용을 순차적으로 보여주는 기법까지 개발할 욕심도 갖고 있다. 오는 7월부터 본격적인 투자유치와 대리점 모집에 나설 예정이다. 모 자동차 기업과 제품 상용화 논의도 진행중이다.

류충섭 대표(39)는 “이 제품이 상용화되면 상업 광고시장에 돌풍이 불 것으로 기대한다”면서 “일단은 디스플레이쪽 기반을 다지면서 고급화 마케팅 전략을 구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발상의 참신함과 함께 제품 특성상 노출도, 연속성, 주목도, 비용 등 다방면에서 기존 전달매체의 한계를 수월하게 극복할 것이라는 확신이다.

지날 수 있는 길만 있다면 어디든 굴러가는 바퀴에 시선을 빼앗기는 그 유혹을 쉽게 물리칠 사람이 있을까? 아이디어의 생소함 때문에 오히려 낯설고 설명하기 힘든 점도 있지만 자동차가 새로운 문화코드로 자리잡은 지금, 거리에 물결을 이루는 시각매체를 상상해보라.

문의 _ 238-0707~8 / www.spacehole.co.kr

글 _ 지영일 (편집위원 · openme@incheon.go.kr) / 사진 _ 김정식 (자유사진가 · jsjsm@incheon.go.kr)



1 전시되어 있는 시제품들 2 류충섭(맨 좌측)이하 3명의 핵심 인물들 3 2002 월드컵축구대회엠블럼이 들어간 제품이미지



호출부호 'HLDO'가 사라졌다.

방송위원회의 추천거부에 따라 iTV 경인방송은 지난해 12월 31일 오전 11시 30분 마침내 방송을 중단했다.

이제 UHF 채널 21번과 VHF 채널 4번에서는 더 이상 어떠한 신호도 흐르지 않는다.

‘전파 자치권’을 외치며 시민 모두 방송국 설립에 동참해 첫 전파를 쏜 지 7년 만에

인천·경기지역 1천300만 시청자들은 또다시 전파를 잃게 되었다.

커다란 저 안테나가 파란 하늘을 향해 경찰24시, 성인가요 베스트30 등의 프로그램을

다시 힘차게 쏘기를 소망해 본다.

글·사진_유동현 (편집위원 · batubatu@incheon.go.kr)

Sea & Air 복합운송체계 구축



글_홍준호
(인천광역시 항만공항물류국장)

인천은 ‘동북아 관문도시 인천건설’이라는 비전 아래 올해를 ‘인천투자의 해’로 삼아 국내외 자본이 몰려오고 대형투자사업이 대대적으로 전개되는 ‘인천 봄’을 조성함으로써 ‘동북아 물류중심도시’의 실현을 위한 도약의 해로 삼을 것이다.

주지하다시피 인천은 우리나라 뿐 아니라 동북아의 어느 지역보다도 역동적 변화의 중심에 서 있다. 세계 경제 질서의 재편과 중국의 급성장에 따른 동북아의 경제 환경 변화가 가져다주고 있는 기회요인과 남북관계 개선에 따른 북한과의 교류를 위한 전진기지로서의 역할과 중요성의 증대는 인천이 동북아 중심도시로 발전하기 위한 중요한 발판을 마련해 주고 있다. 인천이 가지고 있는 지정학적 이점과 세계적 수준의 인천국제공항과 인천항만을 바탕으로 한 무한한 발전 가능성은 참여정부의 발전전략인 ‘동북아 경제 중심 실현’을 위한 핵심역량으로서의 인천의 위상을 공고히 하고 있으며 대한민국 최초로 지정된 경제자유구역은 이러한 잠재력을 구체화하기 위한 야심에 찬 실행계획이라 할 수 있다.

인천시는 금년에도 동북아 물류중심도시의 실현을 위한 물류활성화와 물류기반 조성에 모든 역량을 결집할 것이다. 우선, 인천국제공항의 물류기능을 극대화하기 위한 2단계 공항 확장사업, 자유무역지역 조성 및 첨단 물류산업단지 개발이 차질없이 진행되도록 하고 인천항의 남항, 북항 등 외항 개발사업과 더불어 동남아, 북미, 유럽 정기항로를 조속히 개설함으로써 동북아 관문도시로서의 역할을 수행할 수 있는 인프라 확충에 최선을 다할 것이다.

또한 공항과 항만을 이용한 물류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오는 7월 설립 예정인 인천항만공사의 원활한 설립과 정착을 위한 행정적 지원을 강화하고 포워더의 육성과 컨테이너 화물유치를 위한 지원 방안을 강구중이며 남동공단의 중소기업 물류경쟁력 강화를 위한 물류공동화 시범사업도 차질 없이 수행해 나갈 것이다.

나아가 인천지역의 기업지원을 위한 물류혁신 클러스터 구축사업, 환황해권 수출입 화물의 게이트웨이 기능과 동북아 물류거점기지 여건 제공을 위한 Sea&Air 복합운송체계 구축사업의 단계별 추진대상 선정과 Action Plan 작성, 환황해권 Short Sea Shipping(SSS) 구축을 위한 기반 조성, 물류전문인력 양성을 위한 장·단기 프로그램 확충과 화물자동차 전용 휴게실 건립, 전문물류기업의 육성 등 다양한 정책을 추진해 나갈 것이다.

모처럼 지난해 인천항의 컨테이너 운송 100만 TEU시대와 인천국제공항의 항공화물운송 세계2위 달성이란 고무적인 분위기 속에서 이루어진 제2연륙교 주경간폭에 대한 합의를 계기로 결집된 시민의 힘이 인천의 물류발전을 위한 커다란 동력이 될 것이라 확신한다.

근대화의 문을 연 개화의 현장이며 민족의 궁지와 수난사를 간직하고 있는 우리 인천광역시가 새해에도 시민에게 희망을 주고 ‘국민소득 2만불 시대’ 조기실현을 견인하는 핵심적 역할을 할 수 있도록 ‘동북아 물류중심도시 전략’을 차질 없이 추진해 나갈 것이다.

우리 나라에서 처음으로 성냥을 만든 곳!

(위치 : 동구 금곡동 일대, 설립시기 : 1886년)

그림 _ 김신 (sin2113@hanafos.com)



비만, 난 네가 싫다

글 _ 황재경 (힘찬병원 내과 과장 820-9114)

편리한 생활환경으로 활동량은 줄어든 반면 서구화된 식생활로 열량섭취는 증가해 비만 인구가 늘어나고 있다. 특히 요즘처럼 바깥 기온이 낮은 겨울에는 활동량이 줄어들어 자칫 잘못하다간 비만으로 이어지기 십상이다. 허리띠 구멍이 늘어날수록 수명은 짧아진다는 말처럼 비만환자는 정상인보다 사망확률이 2배 이상 높다.



합병증이 더 무서운 당뇨병 | 당뇨병은 정상 체중인 사람에 비해 비만형인 사람에게서 나타날 확률이 3배 이상 높다. 비만하면 다식으로 인한 당분섭취가 많은 반면 당을 세포속으로 이동시키는 인슐린이 부족하거나 인슐린 수용체의 기능이 떨어지기 때문이다. 혈액 속에서 포도당 농도가 높은 고혈당 상태가 계속되면 혈액순환 장애가 오고 혈액으로부터 영양물질을 받아 대사 기능을 하는 간장, 신장, 심장, 뇌를 비롯해 모든 장기나 기관에 고장을 일으켜 각종 합병증이 오게 된다. 결국 당뇨병은 병 자체로는 문제가 크지 않으나 당뇨관리를 제대로 하지 못해 합병증으로 사망하게 되는 주의가 필요한 난치병이다. 특히 상처나 염증이 있을 경우 면역력 결핍으로 잘 아물지 않기 때문에 상처나 염증이 생기지 않도록 각별히 주의해야 한다.

소리소문 없이 다가오는 고혈압 | 조용한 살인자(silent killer)로 불리는 고혈압은 우리나라 성인의 5명중 1명이 앓고 있는 질환이다. 일반적으로 살이 찐 사람은 고혈압 증세가 잘 나타나며 비만을 동반한 고혈압 환자가 체중을 줄이면 혈압은 상대적으로 내려가듯이 비만은 고혈압의 발병에 깊이 관여하고 있다. 살이 찌면 혈압이 높아지는 것은 몸 전체로 보내야 하는 혈액이 많아지면서 그 혈액을 보내기 위해 심장이 더 힘차게 펌프질을 해야 하기 때문이다. 비만환자는 정상인보다 고혈압이 생길 위험이 2배가량 높기 때문에 고혈압환자가 비만이라면 체중조절을 게을리 해서는 안된다. 보통 체중을 5kg 줄이면 수축기혈압을 10mmHg, 확장기혈압을 5mmHg를 낮출 수 있다.

사망 위험성 높은 관상동맥질환 | 협심증이란 심장부위에 갑자기 심한 아픔과 발작이 일어나는 증상을 말한다. 또 심장주변 혈관이 완전히 막혀 심장근육이 죽어버리게 되는 경우를 심근경색이라고 한다. 비만이 직접 협심증이나 심근경색을 일으키지는 않지만 비만한 사람에게 흔한 고지혈증, 고혈압, 당뇨병 등이 동맥경화를 촉진시키므로 이차적으로 협심증과 심근경색이 생기는 것이다. 따라서 이들 질환이 있으면서 비만한 사람은 그 병에 대한 치료와 더불어 비만을 해결해야 병의 진행을 막을 수 있다.

뱃살이 많아질수록 좁아지는 동맥 | 동맥경화란 동맥의 내벽이 좁아지고 혈관이 탄력을 잃는 현상을 말한다. 동맥경화가 진행되면 혈액의 흐름을 방해하고 혈관 내에 핏덩이(혈전)가 잘 생기게 된다. 일단 혈전이 형성되면 가뜰이나 좁아진 혈관이 더 좁아져서 심한 경우 혈관이 막히게 된다. 이때 특히 타격을 받는 기관이 뇌와 심장이고 이 때문에 뇌졸중이나 심근경색이 잘 생기게 되는 것이다. 동맥경화는 특히 복부비만과 밀접한 관련이 있으므로 허리 둔부 둘레비가 큰 사람은 주의할 필요가 있다.

규칙적인 운동으로 지방간 관리 | 지방간이란 간이 지방질을 잘 처리하지 못해 간세포에 지방(특히 중성지방)이 지나치게 축적된 상태를 말한다. 약간의 지방간은 많은 사람들에게서 발견되며 별다른 증상도 없어서 큰 문제가 되지 않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그러나 비만인 사람들 중의 상당수가 지방간을 가지고 있다. 비만으로 인해 인슐린이 말초기관에 미치는 효과가 떨어져 이를 만회하기 위해 인슐린 분비가 늘어나고, 이로 인해 남아도는 열량이 간에 중성지방의 형태로 축적되기 때문이다. 간조직에 지방이 많이 축적되면 간기능도 나빠지고 피로감이나 복부불쾌감이 나타날 수 있다. 간기능이 나빠고 비만인 지방간 환자들 중에는 간이 나쁘니까 더 잘 먹고 쉬며 보신하려는 사람들이 있다. 이 같은 생각이 오히려 지방간을 더욱 악화시킨다. 열량섭취를 줄이고 규칙적인 운동을 해서 비만이 치료되면 지방간도 좋아질 수 있다.

불규칙한 식습관으로 인한 기능성위장장애 | 비만인 사람들은 대개 식사습관이 불규칙하다. 과식을 하기도 하고 한두 끼 거르는 것은 예사도 아니다. 나쁜 식습관 때문에 대부분 소화불량, 변비, 설사 등으로 고생하게 된다. 이 때 식사량을 줄이고 세 끼를 골고루 나눠 먹게 되면 위장장애 증상이 호전될 수 있다.

고수익 약속? 믿지마세요~

경기침체가 장기화되면서 고수익을 약속하며 투자를 유도하거나, 상품거래를 가장해 소비자로부터 고액의 상품대금을 받고, 3개월 또는 6개월 동안 원금보다 많은 수당을 준다고 소비자를 유인하는 사기피해가 나타나고 있다.

중구에 사는 김명숙씨(58세)는 광주광역시에 본사를 둔 D사 인천지점에서 66만원인 홍삼엑세트 1개를 사면 6개월 동안 '이익금'으로 85만원을 나누어준다는 말을 듣고 15년 동안 시장에서 노점을 하며 모은 돈 2천970만원을 주고 홍삼엑세트 45개를 구입하는 계약을 했다. 김씨는 6개월 동안 받을 855만원의 이익금이 목적이었으므로 1개당 원가 2~3만원하는 홍삼엑은 받아오지도 않았다. 하지만 처음 한 달간 토·일·공휴일을 제외하고 매일 10만원 정도씩 통장으로 들어오던 이익금은 두 달째 들어 1~2만원 대로 줄어들더니 입금이 중단되었다. 김씨를 비롯한 수 백명의 소비자들이 연락을 시도하고 본사를 방문했지만 이미 회사 문을 닫고 도주한 뒤였다.

남구 주안동에 소재한 G사는 건강보조식품(헛개나무, 장어엑기스, 가시오가피 등)을 1세트(2개 900,000원) 판매하면 3개월간 20,000원에서 230,000원까지의 판매수당을 55회 내지 61회 지급한다고 유인하여, 소비자를 방문판매원으로 등록시키고 판매원 본인이 본인에게 판매하는 방식으로 사실상의 투자를 권유하였다. 또한 다른 방문판매원을 모집할 경우 하위판매원 판매수당의 50%를 활동비로 지급한다고 유인하여 방문판매원의 수를 증가시키는 수법을 사용하였다.

G사는 2004년 12월 26일 대표 이모씨 등 6명이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구속되고, 지사장 등 6명이 불구속된 상태이며, 경찰 조사결과 전국 18개 지점을 통해 1만8천여명으로부터 총 2천7백억원을 받아 챙긴 것으로 확인되었다.



앞의 D사가 보장한 6개월간 19만원의 이익금은 연리로 56%에 해당하며, G사의 경우도 연리 54%이상의 이익을 약속하였으나 시중금리가 5%미만인 점을 고려하면 이는 현실적으로 실현불가능한 이익이다.

이러한 방문판매를 가장한 금융사기의 피해를 입지 않기 위해서는, 판매원이 제시하는 상품의 품질과 가격을 면밀히 살펴보고 상품에 어울리지 않게 턱없이 높은 가격을 제시하며 구입할 경우 단기간에 고액의 이익을 보장한다는 권유에 단호하게 대처하고, 유사한 사례를 발견할 경우 즉각 수사기관에 고발하는 등 적극적인 소비자의 대응이 필요하다.

자료제공 _ 인천시 소비생활센터(442-9872 <http://consumer.incheon.go.kr>)

‘형제들과 호박 둘’을 데리고 사는 민들레국수집 아저씨 서영남 씨



“수도자들이 멋있어 보였다고 할까요.”

곡절을 알고 싶어 하는 이쪽의 속마음을 꿰뚫은 듯 민들레국수집 베드로 아저씨는 웃음의 소리처럼 이야기를 꺼낸다.

“물론 검은 수도복에 싸인 수도자들이 그렇게 보였던 것은 사실이지만, 실제로는 사춘기가 지나면서 인생이 무엇인가, 이렇게 산다는 것, 생의 의미는 무엇인가 하는 회의가 생기기 시작했던 게 이유가 되겠지요. 그래서 1976년 만수동 복자수도회 문을 두드린 것인데, 어머니 쪽으로 오랜 구교 집안이었던

까닭에 편안히 수도자 생활을 할 수 있었어요. 그게 스물한 살 때입니다. 그 후 1985년에 종신 서원(終身誓願)을 했고, 그러다가 1999년 11월 탈회했습니다.”

안경 속에서 가늘게 웃고 있는 눈, 말이 끝나면 단정하게 오르려 무는 입매시, 너그럽게 생긴 뺨과 턱, 그리고 희끗해지기 시작하는 앞머리, 전체적으로 상대방에게 호감을 주는 착하고 편안한 용모이면서, 또 한편 이지적이고 약간의 카리스마까지 느껴지는, 뜯어보면 뜯어볼수록 수도자나 신부님 같은 인상인데 지금은 그냥 ‘형제들’과 ‘호박 둘’을 데리고 사는 오십, 지천명의 국수집 아저씨, 민들레 서영남(徐英男) 씨.

서영남 씨가 평수사가 되었던 것이나 다시 세상에 나와 ‘호박 아내’를 얻고, ‘그 호박 아내의 호박 딸’을 얻고, 민들레국수집을 차린 것이나 다 천주님의 부르심이었다. 베드로야, 너는 들판이나 밭고랑, 혹은 담장 밑에 민들레로 피어라. 가장 낮은 자세로 세상에 피는 민들레 한 포기. 그 말씀대로 잘 생긴 남자 민들레는 그렇게 동구 화수동 266-61번지에 알전구 같은 노란 불을 켜 놓고 이웃의 얼굴을 살핀다.

“이 사람들은 형제이면서 손님들이고, 제 직책은 이 국수집 아저씨이고요. 민들레 아저씨! 어떻습니까, 좋지요?”

그렇게 해서 문을 연 민들레국수집. 이 국수집은 노숙자, 독거 노인, 걸식자들을 위한 무료 급식소이다. 처음 시작할 때, 적은 자본으로 끼니 한 때, 국수라도 먹어야겠다고 해서 굳이 국수집이라고 이름 붙였는데 속내는 밥집이다. 밥을 먹지 않으면 힘을 못 쓰는 이들을 위해 메뉴가 바뀐 것이다. 그러나 이들이 실컷 밥으로 배를 채운 뒤, 어느 날 별식으로, 밥 말고 이제 국수 좀 먹어 봅시다, 할 때까지 간판을 고쳐 달지는 않을 것이다.

아직은 겨울이어서 민들레집도 추운 것일까. 몸은 차고 손은 시리다. 연탄 난로가 놓였어도 유난히 추운 오늘, 흠뻑 유리문의 국수집은 냉골이나 다름없다. 난로 옆에 이 민들레국수집 첫 손님이었다는 키가 아주 작은 박 씨가 서 있고, 그 옆에 말을 나누는 것만도 행복해서 연신 웃음을 웃는 한 사람 젊은 막일꾼 손님, 그리고 또 그 옆에는 아직 미간에 그늘 같은 것이 남아 있는 한 남자 손님이 고개를 수그리고 있다.

추위를 눈치 챈 아저씨가, 누가 마시다 남긴 것인지 이미 훨씬 전에 김이 빠져나간 반병짜리 소주를 스테인리스 잔에 따라 내놓는다. 세 평 남짓한 실내는 그래야 훈기를 얻을 것이다. 오늘 목요일과 내일 금요일은 휴무일이어서 이 작고 초라한 천국의 국수집도 이렇게 고요하고 쓸쓸한 것이다. 시내 다른 급식소들이 대부분 주말과 일요일을 휴무로 하기 때문에 민들레국수집은 다른 곳 휴무를 피해 목요일, 금요일을 쉬는 날로 정했다.

“축복입니다. 저는 손님들한테서 냄새를 못 맡아요. 아무것도 맡을 수가 없어요.”

더러운 남루에 땀국이 흐르던, 눈곱을 달았던, 목욕 한 번을 안 해 봉두난발 형클어진 머리이건 그의 손님은 귀했다. 귀하니까 코는 닫히고 마음은 열리는 것. 몇 번씩 탈출(?)을 기도해 그때마다 다시 몸도 마음도 탕자처럼 더러운 녀마가 되어 돌아온 형제 대성 씨를 벗기고 목욕시키고 새 속옷을 갈아입히는 아저씨의 너그러운 코와 마음.

정오가 가까워, 낮선 손님 하나가 이 천국의 유리문을 열려고 애를 쓴다. 형제 한 사람이 얼른 다가가 안에서 그를 도와 문을 열어 준다. 안색이 별로 안 좋은 사십 중반쯤 되는 사내 하나가 아저씨의 가늘게 웃는 눈과 마주친다. 사진을 찍는 사람, 그리고 펜을 든 낮선 이쪽 사람, 또 난롯가에 웅기중기 서 있는 형제들을 보고는 그는 이내 오늘이 쉬는 날이라는 것을 알아차린다. 잘못 알고 찾아온 자신을 몹시 부끄러워하는 사내. 돌아서는 그를 아저씨가 참으로 듣기 좋은 목소리로 불러 세운다.



“이봐요. 들어와 밥 먹어요. 원래 오늘은 쉬는 날이지만 밥이 조금 있으니까 상관없어요. 어서 들어와요.”
“아닙니다. 누굴 좀 찾으러 왔는데...”

황급히 달아나는, 그 어설피고 서러운 뒷모습 때문에 마음이, 마음이 목이 메어 조금 운다. 골목 밖으로 빠르게 사라지는 손님의 이름을 몰라 불러 세우지 못한다.

“이 형제들은 꼭 이름을 불러 줍니다. 이름은 자신을 느끼게 합니다. 자기 존재에 대한 온전한 각성이지요. 주님이 내신 이 지상에 하나밖에 없는 존재! 얼마나 귀중합니까? 그런데 여기 사람들은 누구 하나 이름 불러 줄 사람이 없어요. 그래서 VIP 고객 명단을 작성한 것이지요.”

몇 년씩 이름을 사용한 적이 없는 사람들. 이름 불릴 일이 없으니 죽은 존재인 이 사람들을 살려 내기 위해 우정 VIP 고객이라는 그럴 듯한 허풍(?)으로 그들의 이름을 빼곡히 적어 놓은 것이다. 그렇다. 존재의 확인은 삶의 의욕을 줄 것이고 그것은 곧 사랑의 부활일 것이다. 술주정뱅이 정석 씨의 부활도 ‘나 같은 여자를 왜 감싸 주느냐’고 오히려 대들던 영애 씨, 춘자 씨의 부활도 오래지 않을 것이다. 진정 ‘내’가 ‘너’를 꽃이라 불러 주어야 한다.

그것이 또 진정한 섬김이라는 아저씨의 목소리가 떨어지는 듯 어느 깊은 내부에서 메아리쳐 온다. 병들어 천덕꾸러기가 된 노인, 무기력하고 외톨이가 된 남자 형제들, 오히려 그런 사람들만 골라서 밥을 더 먹으라고, 고기를 더 먹으라고 협박(?)하는 서영남 아저씨의 늑룩한 목소리. 그의 눈이 왜 그렇게 늘 웃고 있는지 알 것 같다. 별의 웃음. 그것은 낮에 뜨는 작은 별의 웃음이기 때문일지도 모른다. 저 바람에 스치어 사람의 향기가 나는 어느 시인의 별. 노란 민들레의 별.

이제 가야 한다. 문 밖으로 나온다. 영양이 모자란 듯 간판 글자의 노란 빛깔이 많이 바랬다. 떠나기 전에 안을 한번 다시 둘러본다. 반짝이면서 기쁨에 충만한 그릇들과 냉장고, 커다란 전기밥통, 수저, 싱크대, 양념통들, 칠판, 거울, 여섯 명이 앉는 장방형의 식탁 하나, 1년 내내 고작 몇 만 원이 담기는 붉은 돼지 저금통. 그리고 안쪽 벽 한가운데에는 빛바랜 성지(聖枝) 가지에 싸여 피 흘리는 예수 그리스도, 그 고상(苦像)이 걸려 있다. 또 한 켠 벽에는 김선장이라는 분이 써서 보내왔다는 이런 글도 붙어 있다. 그것은 그들 형제들을 위한 글이 아니라 우리들, 세 끼를 빠짐없이 먹고, 삼겹살을 먹고, 생선회를 먹고, 때 없이 보신탕을 먹는 우리들에게 보내는 글.

“소유로부터 자유 가난한 이들과 함께 하는 기쁨 아름다운 세상을 위한 투신”

몇 발짝 가다가 한 번 더 돌아보는 골목 안에는 이제 머지않아 봄이 올 것이다. 그 낯새를 벌써 민들레는 채고 있는 것이다. 흐린 유리창 안에서 내다보고 있는 대성 씨. 그도 민들레처럼 봄을 기다릴 것이다. 이렇게 아저씨를 돕는 기쁜 강 베로니카 호박과, 설거지를 맡은 호박 딸 모니카와, 서영남 베드로 아저씨와, 행복한 형제들에게 틀림없이 따듯하고 환한 주님의 봄이 올 것이다.

글 _ 김윤식(시인 · eooul@hanmail.net) / 사진 _ 김보섭 (자유사진가 · ericahkim@yahoo.com)



눈

눈이 소복이 쌓인
재작년 일월 이십 구일
동지를 떠나
무거운 발걸음으로
막내는 육군에 입대했지요.

작년 일월에는
폭설이 내려
힘들게 지은
비닐하우스는 무너졌지만
몸도
마음도 좋아져서
휴가 나온
막내를 보니
반갑고 기쁘기만 했지요

올해 이월
동지를 찾아
막내가
제대해 오는 날에도
흰눈이 사뿐 사뿐 내렸으면...
조원옥 (강화군 선원면)

2004년의 마지막 눈

2005년의 새해가 밝았다. 우리 가족은 해돋이를 보기 위해 외할머니 할아버지가 계신 강원도 속초에 갔다. 그러나 우리가족을 처음으로 맞아준 것은 할아버지, 할머니가 아닌 하얀 함박눈이었다. 어찌 그리도 예쁘게 많이 내리는지... 인사도 드리기 전에 난 동생과 사촌언니, 오빠와 함께 눈사람도 만들며 눈싸움을 했다. 커다랗게 만든 눈사람 위에 외할아버지의 밀짚모자를 씌우고 고무장갑도 끼웠더니 정말 맛있는 눈사람이 되었다.

간단히 점심밥을 먹고 우리는 또다시 눈싸움을 하였다. 이모네 가족과 편을 갈라 눈싸움을 했다. 지는 편이 맛있는 회를 사기로 하고, 난 동생과 함께 열심을 눈을 뭉쳐 놓고 엄마 아빠는 이모와 이모부를 공격하고 정말 재미있었다. 엄마 아빠의 그런 모습을 보니 아이들과 다름게 없다는 생각이 들었다.

눈이 많이 오니까 해돋이를 못보는건 아닌가... 사실 걱정이 되었다. 그러나 다행히도 1월 1일 붉은 빛을 내며 떠오르는 태양을 보니까 기분이 좋았다. 떠오르는 태양에 소원도 빌었다. 이렇게 하얀 눈과 해돋이를 볼 수 있는 속초에 외가가 있어서 행복하다.

이하영 (서구 가정3동)

눈속의 선물

눈이 소복히 쌓인 어느 날, 엄마와 손을 잡고 걸어가고 있는데 엄마가 갑자기 눈을 유심히 쳐다보는 것이었다. 엄마가 그 속에서 찾아낸건 몇 장 포개져 있는 천원짜리 지폐였다. 세어보니 6천원. 엄마는 내손에 돈을 쥐어주셨고 나는 기분이 정말 좋았다. 그 뒤로 한동안 눈이 쌓인 길을 걸을 때마다 땅을 유심히 쳐다보는 습관이 생겼다.

김희주 (남동구 만수6동)

엄마도 좋아요?

부산에서만 35년을 살다가 인천으로 이사를 왔다. 35년 동안 내가 본 눈이라곤 3번 정도. 일부러 눈썰매장이나 스키장을 찾지 않고 내가 사는 고장에서 눈을 본다는 건 참 드문 기회였으니 말이다.

인천으로 이사 오고 처음 얼마간은 낯설고 외로워서 정이 들지 않았다. 그런데 얼마 지나지 않아 정말 하늘이 뚫린 듯이 눈이 펄펄 쏟아졌다. 나는 창문으로 날리는 눈을 보며 놀란 입을 다물지 못했다.

“애, 애들아 눈! 눈이 왜 빨리 이리들 와봐!” 나는 말을 더듬기까지 하며 연신 아이들을 불러댔다. 아이들도 호들갑스런 엄마를 보며 의심스런 눈으로 창가를 쳐다보다 “우와, 우와 눈이야”라며 어느새 장갑과 모자, 장바를 챙기고 있었다.

난 누가 쳐다보는지도 모르고 눈을 향해 달려갔다. 손위에 받아보기도 하고 하늘을 올려보기도 하며 한참을 그러고 있는 동안 나를 유심히 보는 사람이 있다는걸 그제서야 알았다. 아파트 경비아저씨가 눈을 신기한듯 좋아하는 날 신기한듯 보고 계셨다.

“아니, 그래 눈 구경 처음 했수? 뭘 그리 좋아해?” “아저씨도 겨울내내 영하로 내려가는 날이 별로 없는데서 한번 살아 보세요 이렇게 되나 안되나!” 난 아저씨의 눈길 정도는 안중에도 없이 아이들과 한참을 눈의 정취에 빠져들었다. 그 순간 나는 ‘인천에 이사 오길 잘했구나’라는 생각을 했다. 눈 때문에 낯설었던 이 인천이 좋아지기 시작했다. 그날 내렸던 눈만큼이나 이제 이 도시에 정들어 가고 있음을 그날의 기억과 함께 생각해 보았다.

박현주 (남구 용현동)

다음달 테마는... ‘입학과 입사’입니다

‘입학과 입사’에 얽힌 재미있는 글(200자 원고지 3매 이내)과 사진을 보내주세요. 책에 실린 분께는 작은선물(문화상품권 1만원권 1장)을 보내드립니다. 사진을 돌려받기 원하시는 분에게는 돌려드리겠습니다.

보내주실 곳 _ 우편번호 405-750 인천광역시 남동구 시청앞길 25(구월동 1138번지) 인천광역시청 공보관실 <굿모닝인천>
독자마당 담당자 앞 / 인터넷 신청 : www.incheon.go.kr → 굿모닝인천 메뉴 클릭 → 독자마당에 올려주세요. 마감은 2월 20일까지입니다. 응모하시는 분의 이름과 주소, 연락처를 정확하게 기재하셔야 접수가 됩니다. (문의 _ 440-2072)



먹어도 될까?

마음은 소녀같은 고모(원숙)와 엄마의 눈 내린날 추억 사진입니다. 결국, 고모는 사진을 찍은 후 손에 들고 있었던 눈덩이를 한입, 두입 모두 베어 드셨다고 하네요. 하하

강나리 (서구 가정3동)



첫눈과 함께

가족과 함께 한 여행에서 멋진 함박눈을 볼 수 있었습니다. 오랜만에 아이들과 함께한 아빠와 천진난만한 아이들의 모습에서 행복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노지영 (서구 가좌동)



비닐 포대 썰매

작년 이맘때 아파트 초록 담장이 흰색으로 바뀔 정도로 함박눈이 왔어요. 늦은 밤 작은 아이의 성화에 못이겨 남편은 비닐포대를 끄는 마부가 되어 아파트 광장을 수도 없이 돌았답니다.

임순정 (서구 검암동)

희한한 눈사람

요번 겨울과는 사뭇 달랐던 함박눈이 펄펄 내리던 지난 겨울에 찍은 사진입니다. 눈 코 입은 어디로 갔는지 통 찾아 볼 수 없고 특이한 모자만 쓰고 있는 눈사람이 참 재밌네요. 어느 개구쟁이가 꼬마들의 숨씨일까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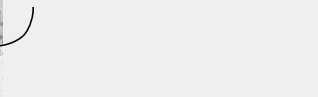
허용 (서구 연희동)



받들어~ 눈!

이번 겨울처럼 눈이 귀할 때는 받들만도 하죠? 기사님이 ‘김치~’를 외치지만, 소리가 얼었나? 입이 얼었나? 2002년 1월 31일 회갑여행으로 짝궁과 함께 한라산에 좀 다녀왔습니다.

홍성덕 (부평구 청천1동)



눈덮인 태백산에서

첫아이 낳고 두 달도 안돼서 시아버님과 시모님이 아기가 보고 싶다고 하셔서 강원도 태백에 갔었네요. 신랑이랑 태백산 정상까지 오르니 눈 덮인 설경이 정말 아름답더군요. 집에만 있어서인지 우울증 비슷하게 왔었는데 태백산에 갔다 와서는 썩 사라졌습니다.

김윤경 (부평구 삼산동)



한 장의 추억

와~눈이 많이 왔어요~ 와~멋진 동생들~ 와~ 멋진 한장의 추억~

한아람 (부평구 삼산동)



눈사람의 양면성

지난 겨울 눈사람을 만들었죠. 한쪽은 돼지 코 눈사람, 뒤편엔 담배 피는 엽기 눈사람.

김종석 (부평구 부개1동)



건강보험료 인상 안내

국민건강보험재정건전화 특별법에 설치된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가입자·의약계·공익 대표로 구성)가 2005년 건강보험료를 2.38% 인상하기로 의결했습니다. 이에따라 2005년 1월분 보험료부터 건강보험료가 인상되었습니다.

구 분		현 행	개 정	비 고
지역	부과표준소득 등급별 적용점수당 금액	123.6원	126.5원	2.38%
직장	보험료율	4.21%	4.31%	

- 보험료 산정방법**
 - 지역가입자 : 부과표준소득(적용점수)×126.5원(적용점수당 금액)
 - 직장가입자 : 표준보수월액×4.31%(보험료율)

문의 _ 국민건강보험공단 (1588-1125)

노동부지원 국비무료교육생 모집

인천북부지방노동사무소로부터 직업능력개발훈련 시설로 지정받은 직업전문학교인 **홍익직업전문학교**에서 2005년 상반기 실업자 직업훈련 신입생을 모집합니다.

학 과 명	교 육 기 간	모집정원	비고
3D웹디자인	2월 17일~8월 16일 (6개월)	30명	현재 접수 가능
플래시애니메이션	1월 25일~6월 24일(5개월)	30명	
정보통신설비	3월 3일~2006년 3월 2일(12개월)	100명	
실내건축	2월 22일~2006년 2월 21(12개월)	50명	

- 자격요건**
 - 현재 실직상태에 있거나 취업을 필요로 하는 일반 사업자
- 모집일정** : 선착순 마감후 선별

- 원서접수**
 - 접수장소 : 홍익직업전문학교 교육행정실
 - 접수방법 : 전화접수, 온라인접수, 방문접수
- 제출서류**
 - 반영함판 사진 2매, 신분증사본 1부, 본인명의 우체국통장 사본 1부
- 전형방법** : 서류전형 / 면접
- 교육특전**
 - 교육훈련비 전액 국가지원
 - 훈련수당 매월 10~30만원 지급
 - 국가기술자격 취득 및 전원 취업알선

문의 _ 홍익직업전문학교 (www.ihdc.or.kr / 515-2222)

인천대학교 인천시민대학 학생 모집

인천대학교 부설 인천시민대학에서는 2005학년도 제1학기 학생을 모집합니다.

- 일반교육과정**
 - 정책교육과정 : 시민아카데미, 경영법륜아카데미
 - 예술교육과정 : 사진예술, 서예, 서양화(현대미술의기초, 수채화표현기법), 한국화(산수화, 문인화)
 - 전문교육과정 : 꽃방경영 및 창업, 플라워디자인, 원예, 원예(심화) 아동미술지도자, 아동미술지도자(심화), 초등영어지도자, 미술치료사(2급), 한자교육사, 심리상담사, 특수아동지도사, 프렌차이즈시스템구축, 서비스경영CEO, 스피치토론지도사
 - 교양교육과정 : 생활영어, 생활일본어, 생활중국어
 - 건강교육과정 : 요가(지도자, 생활, 직장인), 웰빙건강교실, 골프 (선착순 마감)

- 학점은행제(총71과목)**
 - 화예학전공 : 꽃예술론(필수) 외
 - 아동미술학전공 : 미술교육론(필수) 외

동물 뼈, 조개껍질은 일반쓰레기로 버려주세요

우리는 올해 1월부터 시행되고 있는 음식물쓰레기 직매립 금지와 관련하여, 지역여건 및 음식물류쓰레기 처리시설의 종류에 따라 지자체별로 음식물쓰레기 배출방법이 틀려 주민들이 음식물쓰레기처리에 혼선을 빚고 있는 실태와 관련하여 기존 분리배출 기준을 주민들이 이해하기 쉽도록 간소화된 새로운 음식물쓰레기 분리 기준안을 마련하였습니다.

종 류		비 고
<div> <div>• 소· 돼지 등 육류의 털 및 뼈다귀</div> <div>• 조개 등 패류 껍데기</div> </div>		<div> <div>- 분쇄시설의 고장 방지 등 재활용시설의 적정처리효율을 위해 지나치게 딱딱한 물질은 일반쓰레기로 배출하는 것이 바람직</div> <div>- 다만, 뼈·패류 껍데기와 살코기가 붙어 있어 구분이 어려운 경우 음식물쓰레기로 배출 가능</div> </div>
<div> <div>• 호두 등 견과류의 껍데기와 복숭아 등 핵과류의 씨</div> <div>• 1회용 티백</div> </div>		- 종이, 형값 등으로 포장된 1회용 녹차 등을 말함

나머지는 음식물쓰레기로 분류하되, 물기와 이물질을 최대한 제거하고 배출해 주세요!

문의 _ 시 청소행정과 (440-3572)



- 서양화 전공 : 현대회화론(필수) 외
- 체육학 전공(9과목) : 스포츠경영학(필수) 외
- 교양 : 중국어 외

- 등록기간** : 2월 1일(화) ~ 28일(월)
- 등록방법** : 은행 온라인 및 학교방문 등록
- 등록금 납부장소** : 은행창구(우리은행 인천대학교 출장소), 은행 온라인

문의 _ 인천대학교 부속 인천시민대학 교학과 (441-5394~5 구월동캠퍼스 www.cecui.com)

동구노인복지회관 수강생 모집

동구 송림2동에 자리잡은 동구노인복지회관에서 2005년 상반기 사회교육프로그램 수강생을 모집합니다. 60세 이상의 어르신이면 누구나 무료로 수강할 수 있습니다.

- 강좌내용**
 - 건강교실 : 요가교실, 단전호흡, 스포츠댄스, 에어로빅, 수지침
 - 컴퓨터교실 : 초급, 중급, 고급반
 - 학습교실 : 영어초급, 영어중급, 한글기초, 한글초급, 일어기초, 일어회화, 한자(천자문), 고사성어, 서예교실
 - 취미교실 : 민요교실, 가요교실, 고전무용, 동화구연, 도자기공예, 영화감상, 풍물놀이, 취미교실(종이접기, 비즈, 한지공예, 손뜨개질)

- 개강일** : 1월 4일부터 수시 모집

- 접수** : 방문 및 전화

문의 _ 동구노인복지회관 (761-3677)

인감증명 군·구청에서도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1월 17일부터 현행 읍·면·동사무소에서 온라인으로 발급되고 있는 인감증명서를 군·구청에서도 발급받을 수 있도록 하고 인감증명 발급사실을 인터넷으로 신속하게 확인할 수 있도록 하는 등의 새로운 인감증명제도가 시행되고 있습니다.

- 새로운 인감증명제도 주요 내용**

- 전국의 모든 시·군·구청에서도 인감증명을 발급받을 수 있도록 하여 인감증명이 필요한 인·허가 등의 민원을 처리하기 위해 읍·면·동사무소를 방문하는 불편을 해소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 인감증명을 발급받은 개인, 은행, 등기소 등 각급 수요기관에서 대한민국전자정부 홈페이지(G4C)의 민원서비스 창을 통해 발급기관, 발급일자, 발급번호, 주민등록번호 등을 입력해 인감증명 발급사실 여부를 신속하게 확인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인감증명서의 위·변조 등에 의한 인감사고를 사전에 예방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 현재 인감을 신고하거나 인감증명을 발급하는 과정에서 담당공무원이 본인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신청인과 신청인이 제출하는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등)을 육안으로 대조하여 확인하고 있으나 사진의 변질 등으로 정확하게 식별하기 어려운 경우가 있어 신청인의 무인과 주민등록전자자료를 전자적 방법으로 대조하여 본인 여부를 확인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 본인 외에 대리인도 인감증명 발급신청을 할 수 있는 현행 제도 하에서는 적합한 대리인이 아닌 사람이 대리인으로 가장하여 인감증명 발급신청을 할 우려가 있으므로 대리인에게 인감증명을 발급한 기관은 우편이나 휴대폰에 의한 문자전송 등의 방법으로 본인에게 대리 발급사실을 통보해 줄 수 있도록 해 대리인으로 가장하여 인감증명을 발급받는 문제를 해소하고 안전한 인감제도의 정착에 기여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 이외에 500원~800원의 수수료를 징수하던 인감증명 발급수수료를 통당 600원으로, 인감변경신고 수수료도 변경 회수 당 600원으로 하는 인감관련 수수료를 통일시켰습니다.

인천대학교 경영혁신원 부동산경매과정 모집

부동산경매컨설턴트란 부동산 경매와 관련하여 부동산의 공급자와 수요자간의 원활한 거래가 이루어 질 수 있도록 상담해 주는 것을 말합니다. 본 과정을 이수하고 소정의 시험에 합격하신 분에게는 인천대학교 총장의 명의로 부동산경매컨설턴트의 자격인증을 수여합니다.

- 모집인원** : 60명
- 교육기간** : 3월 14일(월) ~ 6월 22일(수) (16주 과정으로 매주 월·수 18:30 ~ 21:30)
- 강의장소** : 인천대학교 본관 4층 422호
- 원서교부 및 접수**
 - 접수기간 : 3월 11일(금)까지
 - 접수장소 : 본 대학 본관 9층 (906호) 경영혁신원
- 교육과정**
 - 교육특징 : 과정수료 후 법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부동산 경매·공매에 직접 참여하거나 부동산경매에 관해 상담해 줄 수 있는 부동산경매컨설턴트를 양성하는 실무중심의 강의 및 답사

접수 및 문의 전화 _ 인천대학교 경영혁신원 (770-8919)

인하대학교 사회교육원·시민대학 수강생 모집

인하대 사회교육원·시민대학은 일반성인을 대상으로 시·소설·피부·미용·외국어회화·컴퓨터 등 전문교육과정과 여성교양교육과정 에버그린아카데미 등 시민대학의 봄학기 수강생을 모집합니다. 또한 국가공인자격증을 취득할 수 있는 평생교육사 화훼장

식기능사, 공인중개사, 민간자격증 취득과정인 부동산 전문 상담사(경매), 심리상담, 방과후 아동지도, 아동미술, 한문, 어린이영어, 독서, 논술지도사 과정과 학점은행제 학위취득과정(전공·교양)의 수강생도 모집합니다.

- **모집기간** : 2월 말까지
 - **학습비** : 4~6개월에 3만원~73만원
 - **제출서류** : 입학원서(소정양식) 1부 / 사진(3×4Cm) 1매 전화접수도 가능함.
 - **원서·입학안내배부** : 사회교육관(정문 옆) 및 정문·후문 수위실에서 24시간 배부
- 문의** _ 인하대학교사회교육원
(860-8292~6 http://life.inha.ac.kr)

인천가톨릭대학교 사회교육원 2005학년도 1학기 수강생 모집

간석 4동에 위치한 인천가톨릭대학교 사회교육원에서 미술교육과정 등 수강생을 모집합니다.

- **과정명**
 - 미술교육과정 : 미술치료(1단계, 3단계, 4단계), 서양화, 이론, 스테인드글라스, 서예, 사진영상, 플라워디자인과 전례꽃꽂이, 독서지도사
 - 전문지도자과정 : 아동미술실기지도사, 특수아동지도사, 노인교육지도사, 방과후아동지도사

- **모집기간** : 2월 26일(토)까지
 - **교육기간** : 2월 28일(월)~6월 11일(토)
 - **장소** : 인천가톨릭대학교 사회교육원 (간석4동)
- 문의** _ 인천가톨릭대학교 사회교육원
(438-8131~4 http://life.iccu.ac.kr)

인하대병원 공개강좌

인하대병원에서는 지역주민들을 위한 무료 공개강좌를 매달 열고 있습니다. 2월의 강좌는 '여성요실금의 진단과 치료'입니다. 시민여러분의 많은 참여 바랍니다.

- **일시** : 2월 18일(금) 오후 3시 ~
- **장소** : 인하대병원 3층 대강당
- **강좌내용** : 여성요실금의 진단과 치료
- **강사** : 비뇨기과 박원희 교수
- **기타** : 참석자에게는 무료 주차증을 지급합니다.

문의 _ 인하대병원 홍보실 (890-2642)

인천아시아육상경기선수권대회 자원봉사자 모집

(재)제16회 인천아시아육상경기선수권대회 조직위원회에서는 대회의 성공적인 개최는 물론 전국민 참여분위기 조성 및 확산을 위하여 자원봉사자를 모집합니다.

- **모집기간** : 2월 28일까지

이 달의 우리고장 국가유공자

6·25 참전 故 이종록 전상군인



故 이종록 전상군인 유공자는 경기도 김포군 검단면 왕길리에서 태어났다. 고향인 김포에서 농업중학교를 졸업한 뒤 농림부 곡물검사관으로 근무하던 중 경북 울진으로 출장을 갔다가 6·25 전쟁이 발발하여 고향에 둔 가족을 만나보지 못하고 부산에 있는 보병 17연대에 징집을 당했다.

이후 인천상륙작전에 투입되었으며 아군의 복진기세를 타고 원주 철원을 거쳐 흥남까지 올라가면서 죽을 고비를 몇 번이나 넘겼다. 그러다가 휴전 막바지 총력전이 벌어진 1953년 7월 14일 금화전투에서 그는 기습공격을 하는 인민군의 박격포 파편을 맞아 오른팔이 잘려나가고 오른쪽 다리가 으스러지는 부상을 입고 8개월

동안 2번의 대수술을 받고 1954년 5월 7일 중사로 명예 전역하였다.

전역 후 그는 팔·다리가 온전치 않은 장애 2급을 판정받아 온갖 심신의 고통을 이기지 못하여 자살까지도 생각하였지만, 그 때마다 신앙의 힘과 가족 등 주위의 격려와 용기로 장애를 극복하였다.

치악행상부터 막노동판의 잡부 등 닥치는 대로 일을 하면서 모은 돈 20만원으로 동구 금곡동에 조그마한 쌀가게를 차려 장사를 시작해 10년 동안 죽기살기로 일해 자립하는 데 성공하였다. 자신 보다 어려운 처지에 있는 상이군인, 전몰유족, 미망인 등을 돕고, 점심을 굶는 노인들을 불러 밥상을 차려주기도 하는 등 봉사와 선행을 몸소 실천하는 데 앞장섰다.

특히 1986년부터 2002년 작고 전까지 매달 동부경찰서 유치장을 방문하여 청소년 선도에 앞장섰으며, 1999년에는 인천지역에 사단법인 국가유공자 보훈선교단을 조직하여 국가유공자 및 보훈가족을 위한 기도회를 주관하였다. 1986년부터 대한민국 상이군경회 인천광역시 동구지회장으로 일하면서 불우회원 돕기, 회원화합단결과 권익보호에 누구보다 앞장을 선 공로로 인천보훈대상, 인천광역시장 표창과 국무총리 표창을 받았다.

자료제공 _ 인천보훈지청 보훈과 (430-0125)

- **인원 및 분야** : 약 000명 / 경기진행보조, 환경정비, 주차관리, 전산, 통역 및 번역, 안전관리, 사무보조, 사진영상 등
- **응모자격** : 18세 이상의 자원봉사 정신이 투철한 대한민국 국민 및 해외동포, 외국인(개인의 경우)과 10명 이상의 회원으로 구성된 단체
- **신청 및 접수** : 방문, 우편, 팩스(032-440-1869), 인터넷(www.16thaac.net)
- **창구 개설운영** : 조직위원회, 시(체육진흥과, 청소년자원봉사과) 및 군·구, 자원봉사센터(시 및 군·구)
- **자원봉사기간** : 2005년 8월 31일~9월 5일(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문의 _ 인천아시아육상경기선수권대회조직위원회(440-8125~7) 인터넷(www.16thaac.net)자유게시판

미추홀문화회관 봄학기 수강생 모집

인천예총 미추홀문화회관이 봄학기를 맞아 미술, 무용, 악기, 국악, 공예 등 다양하고 특색 있는 전통 및 순수 예술 프로그램을 운영합니다. 또한 어머니와 학생을 위한 무료 강좌 설명회도 마련했습니다.

- **접수기간** : 2월 1일 ~ 3월 12일
- **강좌기간** : 3월 7일 ~ 5월 28일
- **장소** : 인천예총 미추홀문화회관 (구 인천여고)
- **대상** : 영/유아, 어린이, 청소년, 주부, 일반인, 직장인

| 프로그램 |

- **무료특별기획강좌 (3개월 강의)** : 생활자기&성악교실, 멋지고 신나는 요들나라(발성반), 서예 교실, 문인화, 어린이 서예교실

(한문/한글), 어린이 풍물, 수필창작과 문학의 이해, 사진 촬영교실, 일러 화화, 중국어 회화, 니하오! 어린이 중국어

- **정규유료강좌(3개월 30,000 ~ 90,000원)** : 생활조형, 섬유패션공예, 한지·종이공예, 화해, 미용, 미술, 무용, 노래·악기·국악, 어학·연극, 건강·스포츠·교양, 창의력·학습개발 등.

문의 _ 미추홀문화회관 (765-0220, 0250 www.mchart.co.kr)

사업 고민 좌~악 펴드립니다



〈굿모닝인천〉은 매달 9만부씩 발행되어 인천시내의 공공기관과 각 가정에 배포되는 인천 최대의 인쇄매체입니다. 〈굿모닝인천〉의 유료광고가 여러분의 성공적인 비즈니스를 도와드리겠습니다.

■광고료(1개월·컬러 기준)

표4 (맨뒤 겉표지)	표2 (앞표지 뒷장)	표3 (표4 앞면)
2,562,000원	1,665,000원	1,281,000원

※광고 게재 등 문의사항은 공보관실 편집팀(032-440-2042, 2071)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부패방지위원회
Korea Independent Commission Against Corruption

인천광역시
Incheon Metropolitan City

상담
전화

02-1398
032-440-3180
www.kicac.go.kr

내일은, 미래는 더 맑아야 합니다

우리 아이들의 해맑은 웃음을 지켜 주세요
당신의 관심이 부패없는 맑은 사회를 만듭니다

독자 여러분의 고견 적극 반영하겠습니다



독자설문 엽서를 보내주신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총 671명이 정성껏 설문에 응답해 주셨습니다. 특히 해외에서까지 설문을 보내주신 독자여러분 고맙습니다. 설문을 분석해 본 결과 독자 여러분이 좋아하시는 기사(복수응답)는 ‘그래 어디든 가보는 거야’ (16.3%), ‘이달의 문화정보’ (13.6%), ‘정보뱅크’ (11.7%), ‘시정뉴스’ (11.4%) 등의 순으로 조사되었습니다.

〈굿모닝인천〉편집팀은 이를 근거로 주5일 근무 시대를 맞아 가족과 함께 편안하게 즐길 수 있는 곳을 직접 찾아가 요모조모 취재해서 소개하겠습니다. 아울러 우리지역의 공연 정보와 문화계 소식의 비중을 점차 늘려가겠습니다.

여러분들의 많은 관심과 사랑을 받았지만 지난해로 연재를 마친 ‘화폭에 담긴 인천풍경’ 과 ‘과거로의 시간여행’ 은 소재가 축적되는대로 다시 연재할 것을 약속합니다.

그밖에 여러분들이 ‘꼭 다루었으면 하는 기사’ 에 적어주신 기획들은 적극적으로 반영해서 차후에 기사화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당첨을 축하합니다

강건우(연수동)	강혜영(주안6동)	고은선(용현1동)	고정덕(계산3동)	고정애(용현5동)	구본선(교동면)
권순혜(동춘3동)	권영애(부평2동)	김기수(연수3동)	김도환(금곡동)	김명수(동춘2동)	김미희(계산4동)
김병선(산곡2동)	김세환(산곡3동)	김수일(삼산면)	김순영(만수1동)	김영호(청천1동)	김유미(동춘동)
김유숙(계산3동)	김인숙(계산4동)	김진희(가좌1동)	김충열(주안3동)	김해동(항동 7가)	나웅환(교동면)
노미옥(만수6동)	문선영(옥련동)	문정미(전남 영암군)	민명숙(강화읍)	민은경(가정1동)	박미경(주안4동)
박미란(검암동)	박영숙(삼산동)	박현옥(갈산1동)	박혜영(학익1동)	박희옥(산곡3동)	백길남(효성동)
백수진(관교동)	백연(청학동)	백영인(도화3동)	백효정(계산2동)	서민정(십정1동)	성지현(주안5동)
손선화(십정2동)	손성심(주안2동)	손진우(효성1동)	송경자(만수6동)	송춘섭(임학동)	신길용(영흥면)
신동원(강화읍)	신현주(만수2동)	양은경(경기도 안산시)	오영근(연수2동)	오영미(학익1동)	요적연(도화1동)
유기연(옥련동)	유명숙(송림6동)	유순희(삼산동)	유한창(고양시 일산구)	윤금재(일신동)	은종미(서울시 금천구)
이강희(부평1동)	이미선(청천2동)	이서영(전남 여수시)	이석진(구월3동)	이선자(석남2동)	이성렬(산곡3동)
이수길(당하동)	이영애(송림6동)	이영은(청천2동)	이유진(부평1동)	이은경(신생동)	이정모(용종동)
이정미(동춘동)	이정부(산곡4동)	이하늘(동춘동)	이혜선(시흥시 포동)	이황찬(가좌4동)	이희란(연수1동)
임만택(인현동)	임선미(주안5동)	임인재(옥련동)	임현실(학익2동)	장인재(동춘1동)	장현기(구월2동)
전정오(선학동)	정만조(항동)	정효자(만수5동)	조숙자(경북 칠곡군)	조택환(송의동)	최경열(계산3동)
최기홍(부평5동)	최문주(간석1동)	최예묵(길상면)	최은수(청천1동)	최은숙(간석4동)	한상만(강화읍)
한응서(간석1동)	허강환(서울시 영등포구)	허용(연희동)	홍성복 (계산2동)	이상 100명	

※당첨되신 분께는 문화상품권(1만원권) 1매를 2월 초에 등기로 우송해 드릴 예정입니다.



1930년대 중반의 월미도 독길.
섬 끄트머리에 바닷물을 끓여 사용하는
공동목욕탕인 조탕(潮湯)이 보인다. (화도진도서관 제공)

월미도는 구한말인 1891년 일본이 해군 저탄장과 선박 급수소를 설치하면서 개발되기 시작했다. 이후 4km 가량 되는 섬 둘레에 벚꽃과 단풍나무를 심어 봄 가을이 되면 많은 사람들이 꽃놀이와 단풍구경을 하기 위해 나룻배를 타고 월미도로 들어갔다. 1922년, 현재의 대한제분 앞에서부터 월미도까지 약 1km 길이, 너비 2차선의 독길이 놓여지자 월미도는 섬이 아닌 ‘반도’로 변했다. 독길은 돌로 쌓아서 만든 아스팔트길이었는데 백중사리 때는 바닷물이 다리 위에 찰랑찰랑 넘치기도 했다. 이 다리는 월미도를 병참기지에서 행락지로 바꾸는 결정적인 역할을 했다.



현재의 월미도 길. 왼쪽으로 인천항과 월미산이 보인다.
(2004년 · 사진가 최용백 작품)